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Autumn 2012
Vol.06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Autumn 2012
Vol.06



Contents

Vol. 06
Autumn 2012

6 들어가는 글

Cover Story

지역문화분권

- 8 행복한 자치와 보편타당한 도시를 위해
- 12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16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정부의 역할
- 20 기획좌담 ‘지역문화분권을 위한 부산의 과제’

Photo Essay

28 산복도로에서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해 구·군 문화회관, 미술관 및 대형서점 등에 배포됩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af.or.kr)에서 e-book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riticism & Review

Hot Review

- 40 근대문화유산 지정제도에 관한 소고
- 44 부산의 근대문화유산, 군집(群集)의 미학

Close Review 장르별 비평

- 50 미술 · 전시 아트쇼부산 환상에서 깨어나서
- 54 문학 · 출판 『열린아동문학』,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신한 몸짓
- 58 영화 · 대중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할매의 노랫자락-영화 「할매」
- 62 건축 · 생활 같은 눈높이에서 다각도의 희망을 꿈꾸다-문화매개공간 ‘쌈’
- 66 무용 · 연극 여름, 공연, 열기, 그리고 성숙한 관객들
「2012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 70 음악 부산의 생활 속 작은 음악회를 생각하다



Cartoon

73 카툰 부산 갈매길

Culture +

- +사람
76 화제의 예술인 조각가 김정명과의 인터뷰
- 81 젊은 그대 ‘단지’ 치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열한 (소설가 서진)
- 85 +공간 부산의 독립영화공간 국도&가람예술관과 아트씨어터 씨앤씨
- 90 +네트워크 국제교류에 대하여
- 94 +세계문화 몽골의 새해는 여름에 시작된다

- 98 부산문화재단 NOW
- 100 편집위원 칼럼 부산에 살아요……



통권 6호 정기간행물(부산광역시 바 01059) 발행일 2012. 9. 20 등록일 2011. 6. 23 발행인 남송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4층 TEL 051-744-7707 / www.bscaf.or.kr 편집주간 최학림 편집위원 권유리아 김용규 김원명 김이석 김형찬 류성호 이승욱 정희준 조은정 편집기획 정민정 조정윤(기획홍보팀) 디자인 및 제작 보아스 커뮤니케이션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부산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문화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들어가는 글

최학림

「공감 그리고」 편집주간,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목월의 시 「이별가」에서 바람은 “니 머락카노 머락카노” 하면서 분다. 그걸 경북 풍이라 한다면 부산이나 경남에서 바람은 “니 머라카노 머라카노” 쫘므로 불 것이다. 사투리의 존득거림과 칼칼함은 이렇게 조금씩 빛깔을 달리하면서 맛깔스러운 것이다.

생각해보면 50만 표제어가 있는 국어사전도 광활한 언어의 보고이지만, 「토지사전」, 「채만식 어휘사전」, 「사전에 없는 토박이말 2400」 따위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의 구체적 삶이 스며 있는 우리말의 삼삼한 보고를 어찌 외면할 것인가. 말은 심성일진댄, 지역문화라는 것은 우리 심성의 다양한 결을 수두룩하게 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화인류학자 웨이드 데이비스 같은 이는 “20세기는 문화적 다양성의 대대적 파괴를 지원한, 또는 수동적으로 승인한 시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지역문화를 세워야 하는 것은 결국 획일화의 틀에 재단되는 사람의 술한 결과 무늬를 붙잡아 제 자리에 놓고 살리는 일이다. 씨줄과 날줄의 교차 속에서 지역문화 분권이라는 것의 위상과 당위가 그러하다.

이번 「공감 그리고」에서는 지역문화분권을 곰곰 생각해보자는 문제 제기를 한다. 마침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잔뜩 애드벌룬만 띄운 채 무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2001년 정부에서는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했으나 뭔가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외려 지역문화를 왜곡시켰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걸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인데, 이것도 10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맴돌고 있다. 참 멀고 험한 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도 지역 문예진흥기금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안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 간의 힘을 한 데 모아 제대로 된 지역문화진흥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분명 어물쩍 넘어가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탄지를 거는 이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 ‘니 머락카노 머락카노’. 지역문화의 사람과 작품, 공간, 행사를 아우른 「공감 그리고」의 이번 글들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고유한 선언과 물음에 값하리라고 여긴다. 

Cover Story

지역문화분권

행복한 자치와 보편타당한 도시를 위해 / 손경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차재근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정부의 역할 / 구모룡
기획좌담 ‘지역문화분권을 위한 부산의 과제’

행복한 자치와 보편타당한 도시를 위해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도시조성실장 역임

1. 지방분권의 조건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집중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종 권력 자원이 사회계층 및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960년대 초 강력한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를 얻어냈지만, 집중의 대가는 승자독식, 중심부로의 권력집중, 지방의 예측과 상대적 박탈감, 자치권 결핍 등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확대재생산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제 2장 제 10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경쟁의 쳄바퀴에서 얻은 피로감을 소비를 통해 완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개성이나 풍성함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시민사회 또한 관변적 토호세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체를 웬만하면 도입하지 않으려는 시도 속에서 엉거주춤하게 시작된 것이나 다를 없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그대로 있으면서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 선거를 하는 자치’이고, 여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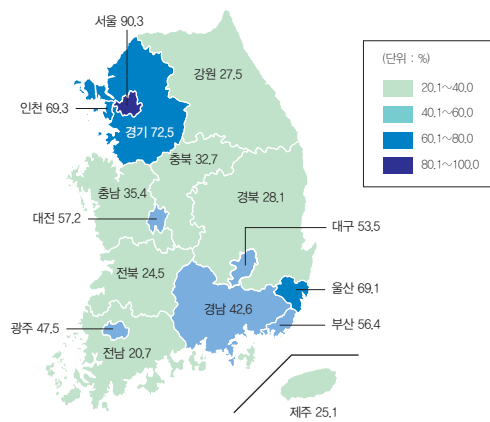
중앙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지속되는 전제 하에 서의 ‘한정적인 지방자치’일 뿐이며 따라서 지방분권의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자립(자율화)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시도한다는 것이다.¹⁾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6년 이후 지방분권의 결과를 지방정부 재정자립도(2011)를 통해 보면 ‘서울 90%, 전남 20%’에서 보여주듯 서울과 지역과의 편차는 상당하다.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행정기능과 권한 또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하고자 한다면 공간적 의미에서의 ‘지역’, ‘지역문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분권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한다. 첫째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분산, 둘째 국가영역에서 시민사회영역으로 권한의 이양과 분산이다.²⁾

1) 다른 나라의 지방분권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영국은 최근 자치입법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프랑스는 먼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중앙 권한을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이양하고, 최근에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을 통해 중앙권한을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이양하고, 도주제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지역계 획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성호, 「한국의 지방분권국가 구축을 위한 이론적 연구」,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길』, 지방분권·재정포럼 제5차 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 2010.

2) (사)한국NGO학회, 『분권형 국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 시민주의 자치분권과 시민리더십』, 조명래 외, 2012, pp.1-3.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자치 발전은 재정자립과 함께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7년 평균 63.0%, 2006년 54.4%, 2011년 51.9%로 계속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2011년 기준 서울의 경우 90.3%로 전남의 20.7%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곳은 2006년 대비 2011년 기준 대구(-17.2%포인트), 대전(-15.6%포인트), 부산(-13.8%포인트)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출처

[한겨레] [토요판] GIS 뉴스 “재정자립, 서울 90 전남 20” 2012.07.06.
송규봉/GIS유나이티드 대표

2. 지역문화분권의 배경과 문화정책에서의 쟁점, 과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주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노력을 쏟아 붓더라도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강고하다면, 권력의 실체를 중앙에 두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시혜적으로만 추구한다면,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곤하고 앞으로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은 허망한 구호로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제대로 된 정착화를 기대할수록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용하는 지역의 의미를 범박하게 말하자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공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활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공동체’이자 ‘비슷한 일상의 조건 속에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공간적 집합체’라 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지역문화를 지칭할 때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고도로 전문화된 순수예술과 예술가들만의 독자적 예술을 의미하기보다는, 생활의 현장에서 상위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하위문화적 특성과 환경적, 역사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는,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질서를 유지해 주는 기능도 포함된 일상생활문화예술의 영역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해 지역을 ‘일정한 생활문화공동체’라고 한다면 생활현장에서 발휘되는 창조성과 상상력이 다른

3) 이현식, 『성찰적 창조도시와 지역문화』, 글누림, 2012, pp.57-61.

영역의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과 공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역문화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는 국가의 문화정책방향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주기도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를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기조를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참여정부는 문화수요의 다양화, 지역문화의 분권화, 산업과 예술의 균형발전 등을 통해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원주의, 문화제도 혁신 등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⁴⁾는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정책기조로 문화경쟁력과 문화구조조정에 두었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기점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장과 지역에서의 문화활동가의 양적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2004년 발표된 <창의한국>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분권분산 모델에 따라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인식과 전국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데 지역문화진흥이 중요하다’는 비전을 통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전국최소기준’의 충족이 제기된 이유는 여전히 ‘지역경제의 격차로 인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의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따라서 지역문화분권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이야말로 ‘경제적 고도성장을 위해 그동안 희생시켰던 사회적 제가치의 형평분배 문제와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문화복지를 실현하게 하는 핵심과제라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여전히 중앙정부중심의 강한 정책 담론이 선행되다보니 지속가능발전의 내발적 동력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사업의 지역으로의 대폭 이양, 광역지역특별발전회계 신설 등을 통해 문화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화계의 여론은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나 17, 18대 국회 기간 중 의원 발의한 법안이 다른 정치적 사안 속에 묻혀 연속 폐기되는 바람에 법제화는 무산되었다. 19대에 들어서서 이병석 의원, 도종환 의원 등의 발의로 새롭게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행복한 자치와 보편타당한 도시를 위해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의 위치는 지방분권과 지역문화분권은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담론을 기본으로 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제도적 요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지역문화진흥의 수단이자 지역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해 낼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주체적 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지역문화공동체와 도시재생(마을 만들기)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등의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주요쟁점을 통해 여전히 진행형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질적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3.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지역문화분권에서 다루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관객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적 평등을 도모하는 문화분산이며, 여기에는 장애자, 저소득층,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의 기회 평등도 포함된다. 행정적 지역분산은 문화정책의 의사결정 및 시행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적 지역분산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의사결정구조가 ‘지역’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정적 지역분산은 문화에 대한 공적 배분이나 지출의 지역적 분산을 의미한다. 수도와 지방의 균형배분, 혹은 지역과 지역의 균형배분을 도모하는 것이며, 문화적 기획의 양적,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평균화하는 배분이나 지출을 경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⁵⁾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됨에 따라 주민들이 수혜라는 입장에서 제공되던 수동적인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재할

적인 복지의 요구, 그리고 문화예술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욕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자체 문화정책에 있어서 주요 목표를 주체적 시민양성으로 초점을 바꾸게 만들었고 특히 문화예술이 삶의 질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의 주된 요소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즉 분권화는 단순한 지역적 분산이 아니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현수(2011)는 대안정책과 대안세력 형성의 장소가 지역이며, 설령 중앙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얻기 위한 싸움이 중요하더라도 각 생활 현장이나 지역단위, 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적가치 또한 지켜지기 어렵다고 본다. 마포의 성미산이나 대구 삼덕동 등의 사례처럼 지역차원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서 작은 기득권보다 더 공정하고 혜택이 갖는 보편적 권리보장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⁶⁾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문화정책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지역이 주요한 담론이 되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풀뿌리 주민들의 주체에 대한 각성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이에 대해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복한 자치’를 가능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방자치제와 지방문화분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누구든 상식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편타당한 도시’도⁷⁾ 가능하다고 보며, 다소 비약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역문화재단의 존재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4)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이 담고 있는 가치들이 그대로 실현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권말기에 국가경쟁력 가치가 대두되고 한미 FTA의 추진 등에 따라 문화의 공적 가치나 시민적 가치들을 외면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동연, 「대안적 문화정책의 구상-새로운 패러다임은 가능한가?」, 『대안을 준비하는 문화정책 포럼』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2012.

5) 송경희, 『한국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역할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박사논문, 2011, pp. 14-18.
6) 강현수,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주체」, 『위기의 한국 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메이데이, 2011, pp. 346-364.
7) ‘보편타당한 도시’라는 용어는 테오도르 폴 김으로부터 빌려왔다. 테오도르 폴 김, 『도시클리닉-병든 도시를 치유하는 인문학적 방법론』, 시대의 창, 201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2004년 늦은 가을, 아마도 11월 11일인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3년 12월 문광부 내 지방문화분권 TF팀이 구성되고 부산에서 처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열린 연속 토론회와 추진 주체 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13회 정도의 회의와 워크숍, 간담회, 법안소위 등 수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법 제정을 위한 추진 기구를 만들어 1년간의 준비 끝에 2005년 6월 대승적 합의를 이루었다. 대표적 추진 단체인 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지역문화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각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현실을 초월하여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유쾌한 기억이었다. 2005년 5월 24일 마련된 축조법안을 가지고 추진위는 의원입법을 청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역의 열망과 네트워크의 힘은 지역문화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

2006년 5월 10일 이광철 의원 등 31인이 의원 발의한 법안은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리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표류했다. 발의 과정이 험난하고, 백가쟁명이 튀어 나오고, 잘리고, 혼란스럽게 변했다. 나중에는 선제정부후보안을 방향으로 정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발의안과 당초 축조 안에 지역문화진흥원설립(당초 지원센터),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육성, 구체

적인 전문인력 양성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더해 조문화한 민주당 김재운 의원 발의안이 제각기 국회에 제출되어 초기 우려되었던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되었다. 결국 지역문화진흥법안은 폐기와 재발의의 진통 끝에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2012년 6월 양당이 합의하여 공동 발의하였으나, 정치적 대립으로 정기회가 열리지 못하고 폐회, 법안은 또 다시 폐기되는 곡절을 겪는다.

그렇다면 초기 추진과정의 기적적인 합의와 문화사적 대사건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첫째, 축조법안을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상관관계와, 기관과 정부 부처, 지방정부 등의 이해득실 혹은 입장과 견해가 민감하게 개입되기 시작했는데, 일부가 주장하고 인식했듯이 기존 문예진흥법을 대체한다는 오해 또는 암묵적 목적성의 표시는 현장 민간 전문인력들의 분열을 가져왔다.

둘째, 기존의 문화정책 관련 기관들과 문광부에 설립될 지역문화진흥원이 가진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어떤 형태로든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각각의 인식은 결국 기관의 존립과 위상 문제와 결부되었다. 한쪽은 기존 기관기능과 관련 다른 법조문을 보



완하면 기능하기에 공연한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다른 일방은 이미 관성에 젖은 기관 구성원들에게 기능보완을 한다고 해서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철학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문화관련 누더기법률로는 이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한 대안제시와 실현방안에 대한 준비과정이 미흡하였고 기간 또한 매우 짧았다. 그러니 설득력이 부족했고 결국 김재운 발의안이나 이병석 발의안, 합의한 공동 발의안 어디에도 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문내용도 없었다. 지방정부는 고사하고 관련 중앙정부 부처 간의 재정논의가 전무했다는 것은 이 법이 결국 기존 재정과 기관의 몫을 나누는 재분배 구조로 오해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넷째, 글머리에 언급한 다양한 영역의 초기 추진 주체들이 의원 발의 청원 이후 급격하게 분열된 점이다. 한 가지는 매우 소수의 전문위원과 정치권에 입법에 관한 사항을 미룬 채,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 진행과정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자명한 현상 즉, 초기 관여한 주체와 인력들이 실제 법안 성안 과정에서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입장을 대

변하고 법안에 이를 반영 혹은 제거하기 위해 개입한 흔적이 농후했던 점이다. 그러니 추진 네트워크는 느슨해졌고 결국 빠르게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올해 7월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때 상정되었다가 미개회로 폐기된 양당 합의 공동발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단독 발의하였다. 지적하자면 필자도 단독발의에 대한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의정활동 성과 정도뿐이다. 그러니 민주통합당(구 민주당)에서도 발끈한 모양이다. 원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참여정부시기부터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 보면 줄지에 허를 찔린 셈일 수도 있다. 하여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이 바쁘게 움직였다. 여러 차례의 관련전문가 간담회와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청취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 52명의 의원들이 참여, 대표발의를 마쳤고 반드시 올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의된 이병석 의원안과 도종환 의원안의 내용을 살살이 훑어보고 분석도 마쳤다. 논의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병석 의원안의 방향성은 선제정후보안으로 18대 합의안과 대동소이하고 법안 내용이 비교적 가법다. 하지만, 후 보안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현실이다. 반면 도종환 의원안은 지

역문화진흥원의 설립, 지역협력위원회 설치 운영, 지역문화재단 혹은 지역위원회의 선택적 설립 의무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지정과 지원, 문화의 집 운영지원, 공공 문화시설 제공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기금 확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전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발의안에 따른 향후 5년간 비용추계인 177억4천만원 중 2억4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예산이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충당된다는 점은 법안 통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법안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다. 물론 법 제정 과정에서 협상을 염두에 둔 버릴 카드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에 요청받은 원고분량을 감안해 볼 때, 양당 발의안을 조문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의 우여곡절 과정을 명경으로 삼아 바람직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혹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더 좋은 길은 없을까하고 몇 가지 고민하고자 한다.

먼저 입법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지향하고 투영할 철학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목적인 법안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양 법안이 공통적이지만 특히 민주당안은 문화 관련 기존법안과 상관관계가 제법 많다. 다행히 폐기된 안에 포함되었

지만 정부가 다른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제화 혹은 준비 중에 있는 예술교육사와 문화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배치 조항을 제외하여 다른 선행 법제화 과정을 배려하고 존중한 점,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연착, 지역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 등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문화지형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그룹, 관련 기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추진주체들이 지났했던 과거 진행과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냉철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민간그룹이다.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해 온 법안이지만 민간그룹이 주체의 핵심일 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추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자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병합하여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현재 우리나라 문화지형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당장 문화 관련 제반 법률을 재정리하고, 그것에 따라 문화지형을 구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문화정책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대승적 판단과 혁신적 조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 특정지역 집중이라는 현재의 위기지점 그대로에서 기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한된 지면이지만 언급할 대목이 있는데, 법 제정과정에서 지역

문화진흥원의 설립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설립목적을 긍정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르코와 아르떼, 캄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또한 지역이라는 단어가 명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고민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과 기능에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실현의지와 여건이다.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진흥원을 설립만 해놓고 전례를 되풀이한다면 또 하나의 재앙이 추가되는 셈이다. 지역문화진흥을 목표로 한 기관설립이 또 하나의 중앙통제기관이 늘어날 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역문화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약화시킬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과정에서 핵심쟁점이기도 했다. 현재 진흥원설립에 대한 조문은 이병석 의원안에는 없고 도종환 의원안에는 진흥원과 협력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진흥원의 설립이 진정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의로운 조문인지 냉철히 따져 볼 일이다. 길은 많다. 대선정국을 맞아 다시 시작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대립과 편견으로 범법과 형해만 남기고 사라진 지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으로 다잡한 일임에 분명하다. 지역문화진흥의 철학 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이 품고 있는 정신이 반드시 자리하길 바란다. 🚫🚫🚫🚫🚫🚫🚫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정부의 역할

구모룡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평론집 『제유의 시학』, 『지역문화와 주변부적 시각』, 『해양문화이란 무엇인가』



대다수 광역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매개로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과 연계된다. 그런데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는 다른 방식이다. 민간 위원회와 준(準)민간재단의 차이는 그 형식에서 드러난다. 전자가 협의체제라면 후자는 관리체제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환골탈태하여 승격된 기구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조직 시스템을 어느 정도 깔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문화예술위원회/자치단체-문화재단’의 조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통일성의 결여? 아니다. 아직 정부와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 가령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있지 못하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1)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적인 상호 연계성이 형성되고 2)지역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원 확충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각 지역문화재단의 구조는 정책협업의 고리가 약하다.

지역정부가 문화재단을 선호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지역정부 내에도 조례에 의한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단순 의결기구에 불과하다. 지역정부에서 하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이관하기에 적합한 것은 문화재단이다. 대다수 지역정부가 문화재단으로 일관한 것은 관리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순전히 정책수립의 논리를 좇아 이를 설립한 것은 아니다. 정책수립의 과정은 이념→

정책→시책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이념은 지역정부의 문화정책 전반을 통여한다. 문화의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문화경제주의, 문화복지주의 등 다양한 이념이 설정될 수 있다. 민간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대체로 문화의 민주화나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가치지향과 연관된다. 이러한 지향을 따를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문화재단은 지역정부로부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단이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업은 합리적인 ‘지원-심와-평가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다수 문화재단이 순조롭지 않다. 비단 문화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상태(理想態)인 ‘팔 길이 원칙’은 문화재단을 보는 지역정부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질된다. 아니 이것은 거의 신화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관리의 관점이 우세한 탓에 문화재단을 매개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역정부가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자원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정부가 후원자로 물러나는 것은 힘들다. 지역정부가 제공한 재원의 집행과정에서 문화재단은 많은 행정적 간섭을 받고 있다. 집행 단위와 시한 그리고 결산방식이 문화재단의 창의적인 지원기획을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역정부와 오랜 유착관계를 형성한 문화예술단체의 개입도 문화재단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실제 이러한 단체들은 지역정부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지역정부와 형성하고 있는 오랜 연합을 절연할지도 모



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의 기능을 맡고 있는 의회가 문제이다. 지자체 의원들의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경우 문화재단은 민간기구적 성격을 유지하기 힘들다. 문화재단을 지역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만다. 이러한 인식을 지닌 의원은 문화재단에 도움이 되기보다 독이 된다. 지역정부의 공무원보다 지자체 의원이 문화재단의 활동을 제약하는 일도 없지 않다.

문화재단이 가장 공들여 수행해야 할 일은 앞에서도 말한 대로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질과 양, 수월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시 기존의 전문예술가 중심의 지원정책이 문제가 된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은 거의 전문예술가와 이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접근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설립의 계기가 비록 지역정부가 문화민주주의를 정책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설립초기부터 접근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득권을 고집하는 전문예술가집단에 휘둘리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시스템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의 실현은 어렵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원시스템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지원방식을 부가하려 할 때 당장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 많은 지역의 문화재단이 전문 예술가단체가 내세우는 기득권 주장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이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데서 유발되는



경향이 크다. 수월성, 접근성, 창의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내세우는 지원시스템 구성이 요긴하다.

지역정부와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정부의 업무를 준(準)민간기구인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정도로 인식할 경우 새로운 기구 설립에 따른 비용만 키우는 형국이 되고 만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들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려다 그만 둔 광역자치단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처방은 잘못되었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치(governance)를 이끌어내는 전향적 사고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한 상호 설득과 이해는 현 단계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적어도 지역정부와 지역사회는 문화재단을 지역문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이럴 때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지역의 가치로 환수된다. 아직 문화의 가치나 그것이 유발하는 효과에 대하여 논쟁적인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지만 당장 반박에 부딪히고 만다.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이나 문화예술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이나 다른 설비투자에서 나타나는 결과만큼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보물과 보웬이 지적하고 있듯이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는 피할 수 없다. 그들이 ‘비용질환’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문화예술, 특히 기초예술영역에는 수지적자가 기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역정부도 문화예술에 대한 자원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는 푸념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한정할 수 없다. 물론 문화산업 창조지구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은 지역경제 발전 전략으로 유익하다. 이러한 산업적 차원과 달리 문화예술은 미래세대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감성을 개발하며 지역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지

역 활력의 원동력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예술이 시민성, 의사소통, 창조성, 삶의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지역정부와 문화재단은 이러한 지역문화의 효과에 만족할 만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첫째, 자원 확대를 들 수 있다. 수월성, 접근성, 창의성이라는 세 가지 지원 방향에 맞는 재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전문 예술가지원 예산만으로 접근성과 창의성영역을 확산하기 어렵다. 말할 것도 없이 접근성과 창의성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중과 창의적인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가령 부산의 경우 지역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은 몇 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월성영역에 한정된 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상응하여 지원시스템의 혁신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닌 문화예술집단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줄이면 서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의 재원확충이 긴요하다. 둘째, 지역정부는 문화재단에 대한 인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상응하는 일로서 문화재단이 더 많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문화예술 행정, 마케팅, 경영 등 다양한 일들을 맡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일과 연관된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고용 창출의 본거지가 될 수 있다. 지역정부는 문화재단의 인력 확충을 인건비 출혈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 창의적인 인재 유입과 고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셋째, 민간 재원조성(fundraising)을 위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지역정부가 기존의 지원 재원을 묶으면서 그 타당한 근거로 문화재단의 자발적인 재원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재단으로서 그에 걸맞은 재원조성을 하라

는 뜻이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의 재원조성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다. 아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업 의 기대는 크지 않다. 그것이 기업 브랜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에 설득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민간기업은 자기대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정부가 기부자 개발과 네트워킹에 나서서 문화재단과 공조하여 재원조성의 험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원결과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문화예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사업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꿰어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전 지원, 사후 지원, 다년 지원, 직접 지원, 간접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 수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정부는 특정한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유연한 행정 문화가 절실하다.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부가 할 일은 이밖에도 많을 것이다. 우선 당면한 네 가지만 지적하고 이러한 지역정부의 역할에 따른 문화재단의 할 일들을 부가하려 한다. 첫째, 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담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예술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며 어떤 사회적 효과를 가지는가를 지역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단의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문화재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유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현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화재단은 문화행정, 문화마케팅, 문화기획, 예술경영 등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가는 진지가 되어야 한다. 이들과 더불어 외부의 문화예술 기획가, 활동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역의 문화 활성화가 증대되



는 것이다. 셋째, 재단의 운영주체가 이사회인 만큼 이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문화재단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재원을 조성하는 주체들이다. 따라서 재단의 부족한 재원을 증대할 수 있는 이사 유치가 요긴하다. 넷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단순히 주어진 예산을 나누어주는 시혜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늘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자원-심와-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특이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을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이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적인 연구개발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용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생각할 시점이다. 하지만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10년여 표류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문화적 지체는 여전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예산은 지역 정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미미하기 짝이 없다. 특히 문화재단에 주어지는 재원은 더 작은 규모이다. 만일 이를 배로 늘인다고 하더라도 지역정부의 예산확정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원과 인력의 확대를 통하여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플랫폼이 되게 하는 일, 이 일이 그리 요원한 것만은 아니다. 문화재단 또한 재단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과감하게 문화적 혁신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문화재단에 거는 시민사회의 기대는 매우 크다. 이러한 기대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느낌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망한다. 🚫🚫🚫🚫🚫🚫



기획좌담

지역문화분권을 위한
부산의 과제

일시 2012년 8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회의실

좌담자 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김종균 부산일보 문화부 차장

김원명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경성대학교 교수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정민정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사회자

정리



사회자 오늘 이 자리는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감 그리고」 기을호의 커버스토리 '지역문화분권'과 관련한 좌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좌담을 위해 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님, 김종균 부산일보 문화부 차장님, 김원명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역문화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을 부산의 상황에 적용해보고, 지역문화 진흥법에 대한 내용과 지역문화재단 및 정부, 그리고 각 예술인, 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의 조건, 지역문화분권의 배경 및 문화정책에서의 쟁점 등 지역문화분권에 대한 참석자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명 얼마 전에 「토탈리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1세기 말 생화학전으로 인해 지구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영토가 두 군데만 남게 되고 그것마저 지배 계층인 브리튼연방과 식민지 콜로니로 양분되어 대립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두 지역을 17분 만에 이어주는 중력열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통수단과 정보망을 통해 브리튼연방이 콜로니를 지배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나는 지배당하고 있는 콜로니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문화가 한국에 있는 모든 문화자원들이 징발되어만 들어지고, 각 지방에서 세수를 통해 뺏아들인 재정과 서울로 흡수된 인적자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착취와 징발인 것이지요.

김상화 섬뜩하게 표현하지만 저는 뺏대로 쪽쪽 뺏아올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진즉부터 지방분권과 관련한 논의는 지속되었지만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약 20년 정도 되어가지만 아직 지방자치는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했고, 여전히 중

양정부 어느 당에서 되는지에 따라 정책의 변동도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문화 역시 그러한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지요. 제가 영화분야에 있어 영화제작사 수치로 비교해 보면 제작사의 94%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고 '영상도시' 부산은 25%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나머지 다른 지역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지금의 전반적인 구조와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봅니다.

김종균 제가 문화부에 있으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0년 문화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분석 자료를 어떻게 입수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는 지역별로 분석된 데이터 없이 항목별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 처음 그 자료를 보고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보통 지역에 대한 항목과 분석이 있게 마련인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직접 2~3일 정도 계산을 하고 확인해본 결과, 기금의 80%정도가 서울, 경기지역에 몰려 있고 부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당시 집중보도를 하고 관련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면서 지역문화분권의 개념을 인식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변화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역문화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와 배분기준 조정을 위한 재단의 노력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네, 지역문화분권과 관련한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 수도권 지역으로의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서울과 경기도 역시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 대 지역정부의 구조로 개념을 잡아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원명



김상화

김상화 맞습니다. 한국처럼 전국 단일의 문예조작을 가진 나라도 찾기 어렵습니다. 민예총이든 애초이든 모두 전국 단일조직을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두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탈피해야겠지요. 민예총은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수직적인 조직을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올해 말까지 설립을 마치 각 지역의 독립된 법인을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이번에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간담회를 보면서 서울과 경기 문화재단의 태도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서울과 경기 쪽에서도 중앙기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정책 결정과 집행이 무작정 지속되지 않도록 함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역협의체가 대결구도가 아닌 화합의 구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원명 지역문화분권은 결국 진정한 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민예총의 경우가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던 권력이 지방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각 지방에 있던 여러 권력들의 일부가 모여 중앙의 권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연방제가 후자에 속하겠지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권력을 떼어준 구조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나누어 주는 형태이다 보니 그동안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과정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시·도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과정처럼 지역에서 중앙으로 뻗아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자 이 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이 부분은 지역 문화재단 및 지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 기존의 문화기구나 단체들 사이에도 업무적 중복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문화진흥원까지 생기면 또 어떤 중복의 효과(?)가 있지 걱정됩니다. 사실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는 법에 따른 관련 단체를 만드는 것이 편하겠지만, 실제로 문화예술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지원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때 더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 관련 단체가 늘어나면 단체들 간의 업무 중복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그 사이의 일력으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각 지역의 문화재단은 해당 지역에서 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시·도 문화재단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문화진흥원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단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사회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그리고 특히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시, 문화예술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원명 우선 지역문화진흥법인과 관련하여 재단의 역할을 살펴보면, 문화재단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도 문화재단 협의체가 구성되면 진흥원의 교류·협력 기능까지 충분히 커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상명하달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문화재단이 아래에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제안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문화분권, 문화자치에 대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앙의 문화기구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자 네, 지역문화분권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언급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원명 2006년도에 이광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낙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선 그 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기관들 사이의 내부 분열이 주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각종 법과 지역문화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엄청난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재발의했지만 법안이 보류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그나마 틀을 잡아 놓은 지방분권을 오히려 후퇴시킨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상화 이 법이 발의되어 온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마다 매번 진흥원이나 재단 등, 결국에는 중앙집권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기구를 설립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통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만들어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선 지금 있는 기구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기구를 무작정 설립하고 이후에 역할과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찾고 다들어서 그것을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실현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합니다.



비춰질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문화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고, 공무원과 문화재단 간의 협치에 관해서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점차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 문화재단이 지역정부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상화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제안된 내용들이 중앙의 정책 기반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는 결국 그 지역의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 논의의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으면 결국 이전의 실패한 사례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흔히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직 이전의 사례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지역문화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처럼 어정쩡한 기구로 전락한다면 또 하나의 실패 케이스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그 속에서 실질적인 법안

이 모아지고, 행정은 그것을 매개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종균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정책자금인 지역에 제대로 분배,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교류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외적 차원의 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도 각 장르별로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지역 내 균형을 맞추기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문화부에서 현장을 취재하면서 부산의 청년문화영역이 너무 열악해 보였는데, 작년 화춘프로젝트와 올해 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가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에 비해 열악한 분야를 키워 특정 장르만 두터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몫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큰 예산이 배분되었을 때 효율적인 실행과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도 문화재단 협의체가 구성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지역의 몫을 키우는 것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내에서의 균형을 맞춰가는 부분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화 다양한 장르가 각각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자발적인 발아가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종종 부산의 시무권과 동부권 문화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시무권이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부권에 자본이 집중되어 콘크리트 더미들이 새롭게 많이 생겨났지만, 시무권에는 그곳 나룻배의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기능성과 형태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다양한 지역의 상황들을 균형있게 조절하고, 또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작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강역만 해도 미

니 부산지역 방송국에 방송을 송신할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열패의식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의 것을 경시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부산지역의 신문을 보지 않고, 부산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부산지역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부산을 지켜주나요? 결국 당해도 싸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각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상화 지역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발전적 해체'라는 말이 행정조직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각 문화예술 기관장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발탁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관이 생겼다 하면 전부 공무원이 기관장을 맡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성격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맙니다. 비슷비슷한 각 지역의 축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만 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하나의 모범 사례가 공유되면 교과서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며 실행하게 됩니다. 문화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기질이 창의적으로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한 정책이나 행정에서는 교과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공무원이 각 구의 문화예술기관장을 맡고 있으면 적극적인 기획의 부재로 건물만 있고 내용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는 결국 부산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회자 서울시의 경우 25개의 자치구 중 현재 5개 구에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문화예술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재단은 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결국

리 기획해서 정해진 내용을 시민들이 그냥 신청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따따가'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을 먼저 조사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강좌를 여는 등 주민의 참여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합니다. 재단은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정보센터 역할도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지역문화분권이 확대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화행정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김원명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지역의 몫이 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몫이 커졌을 때를 대비하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일의 순서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을 인식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은 자기 고유의 분야에만 충실할 뿐, 전체 그림에서 열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은 건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내가 신청한 금액에서 깎이지 않고 신청한 금액대로 지원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문화의식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재단은 지역의 문화에 술가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사회자 네,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역정부, 문화예술인 등 각 주체별로 필요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원명 각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주체적인 문화의식이 중요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라디오 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MC를 맡게 되었는데 그 방송이 양산지역을 조금 벗어나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다양한 문화 공연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에서 부산에 취재를 거의 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



조정운



김종균



너무 고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에서도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특히 문화분야의 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기획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보다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지를 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또 다른 부분은 부산의 문화기획자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끔 서울에서 내려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볼 때면 연속적이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산에서도 이러한 인력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양성과 더불어 현재 관에서 차지고 있는 부분을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실무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과 단계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민간의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시의 입장에서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불안감과 집행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문전성시프로젝트를 보면 각 지역의 전문가가 해당지역을 담당한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중앙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내부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인력 수급에 있어 문화예술기관의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문가들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결국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김원명 지역문화분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뿐만 아니라 행정으로부터의, 공무원으로부터의 분권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각 문화기관의 공연장에도 기획자가 있지만 결국 공무원 조직 속에 홍일점처럼 존재하는 구조이고,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기획자가 자신의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균 예전에 부산의 구문화회관과 관련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민간기획자가 있는 회관이 2곳이었고, 민간기획자의 유무와 자체기획프로그램 제작 상황을 취재한 결과 민간기획자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자체기획프로그램의 비중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과중한 업무로 자체기획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 단위의 조직을 비롯해서 다양한 범주에서 민간 기획자들이 역량을 쌓아가고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단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정말 부산의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문화예술 전문가를 위한 인력양성과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다양한 자리를 민간전문가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시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오늘 좌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균 제간지 커버스토리로 좌담을 통해 지역문화분권에 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관련 내용을 취재해 오면서 지역문화분권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 여러 단체들의 지원이 늘어났고,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화 지역문화분권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괴리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법만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에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양식과 새로운 양식은 늘 충돌하게 되고, 그러한 충돌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단이 그 과정에서의 행정적, 정책적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쏠림현상으로 소외되는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이 균형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성장한 인력이 부산에서 단계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 지역의 영화제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전문성의 축적이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원명 커버스토리 총론 내용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주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노력을 쏟아 붓더라도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강고하다면, 권력의 실체를 중앙에 두고 문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시혜적으로만 추구한다면,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나 여전히 피곤하고 앞으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은 허망한 구호로 남아 있을 뿐이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의 속성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모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다른 단체들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구심점 역할을 문화재단이 수행하면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분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산복 도로에서

사진/글 뿌리아 김(PRIYA KIM)

사진예술가,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 작가

경성대 사진학과 석사 졸업, 경성대 언론홍보학과 박사 수료

〈중층적 재현 산복도로, 그 신화적 공간〉 외 7회 개인전, 그룹전

장애아동, 다문화이주여성, 어르신들 사진 교육 및 전시기획



일 년 반 내내 주먹만한 땀띠를 이마에 달고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린 풀잎 같은 것을 등에 업고 감천동, 아미동 고개를 달처럼 넘어 병원으로 올라 다니셨다는 어머니의 고백이 다시 뜨는 해처럼 딸내미를 살려냈는지요.

피난 와서 첫 짐 푸시고 살면서 몸 푸셨던 바로 그곳을 매일 줄넘기 하듯 오르내리셨지만 정작 굶은 전선줄 같은 세월이 어머니 몸을 타고 오르내렸던 것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마을과 어우러진 벽화나 깎둑 썰어진 계단, 하늘을 떠받치는 옥상주차장은 없었겠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별꽃이 핀 초가에는 부산포를 내려 보며 국수처럼 빨래 널던 흙마당은 있었다지요.

발 뻗어 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비탈진 빈 비포장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머물고 싶은 골목과 계단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수수한 달이 가장 먼저 뜨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터져 쏟아지는 산복도로로 다시 생명을 얻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는 마른 잡초 같은 당신을 업고 제가 산복도
로를 오를게요. 어머니 보세요, 부산의 오래된 얼굴을요.
부산의 살 냄새나는 주름진 이마를요. 고개 너머 무겁게
올랐던 그 길을 이제는 제 등에 업혀 천천히 내려가서요.
혹시 빈 종잇장 같은 몸조차 힘겨우시면 제가 잠시 대신해
서 보여 드릴게요. 기억 속 고개를, 산복도로를요, 찰칵!

Criticism & Review

Hot Review

근대문화유산 지정제도에 관한 소고 / 김기수
 부산의 근대문화유산, 군집(群集)의 미학 / 강동진

근대문화유산
지정제도에 관한
소고

小考

김기수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설관리본부장

문화재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근대문화유산보존회 부회장

근대문화유산과 문화재 보존정책

우리나라에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문제는 1980년 독립문 이전을 계기로 1995년에 단행된 구 총독부청사 해체를 둘러싼 논란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근대기의 문화유산들은 현대사회의 역사·사회·문화의 중요한 척도로 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근대기 문화유산들이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2001년 7월부터 기존의 지정문화재제도와는 구분하여 등록문화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대상물을 엄선해서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규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제도로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의 경우 보존 및 활용조치가 필요한 것을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이 제도로 근·현대기에 생성된 모든 역사적, 문화적 산물을 보존하고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보존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¹⁾ 따라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대기의 전통적 의장, 기술, 공법 등을 계승한 건축물과 함께 건조물, 기념물, 미술, 역사자료 뿐만 아니라 경관, 공원, 도시계획까지도 보존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한 보존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등록문화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소유자 자신의 희망과 필요성에 따라 보존과 활용이 가능한 점으로 이는 제도의 강제성보다는 근대문화재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1)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제도」, 2005, pp.3-9.

시지정문화재			
종목	지정일	명칭	위치
1 유형문화재 제50호	2003.09.16	가덕도등대(加德島燈臺)	강서구 대항동 산13-2
2 시도기념물 제49호	2001.05.16	근대역사관(舊)東洋拓植株式會社釜山支店)	중구 대청동 2가 24-2, 8, 9, 10
3 시도기념물 제51호	2001.10.17	부산지방기상청(釜山地方氣象廳)	중구 대청동 1가 9-305
4 시도기념물 제53호	2002.05.06	임시수도대통령관저(臨時首都大統領官邸)	서구 부민동 3가 22번지
5 시도기념물 제55호	2003.05.02	부산진일신여학교(釜山鎭日新女學校)	동구 좌천동 768-1번지
6 시도기념물 제56호	2006.11.25	영도대교(影島大橋)	영도구 대교동
등록문화재			
종목	지정일	명칭	위치
1 등록문화재 제41호	2002.09.13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釜山 臨時首都 政府廳舍)	서구 부민동 2가1
2 등록문화재 제302호	2006.12.04	부산 송정역(釜山 松亭驛)	해운대구해운송정동 외299-2
3 등록문화재 제327호	2007.07.03	부산 북병산배수지(釜山 伏兵山配水池)	중구 대청동 1가 6-4
4 등록문화재 제328호	2007.07.03	구 경남상업고등학교본관(舊 慶南商業高等學校本館)	서구 서대신동 3가 521
5 등록문화재 제329호	2007.07.03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 (구 남선전기) 사옥 (韓國電力公社 中釜山支店(舊 南鮮電氣)社屋)	서구 토성동 1가 23-1
6 등록문화재 제330호	2007.07.03	부산 정란각(釜山 貞蘭閣)	동구 수정1동 1010
7 등록문화재 제349호	2007.09.21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釜產 草梁洞 日式家屋)	동구 초량3동 81-1
8 등록문화재 제359호	2007.10.24	재한유엔(UN) 기념공원(在韓유엔(UN)紀念公園)	남구 대연4동 779-1 외
9 등록문화재 제376호	2008.07.03	구 성지곡수원지(舊 聖知谷水源池)	부산진구 초읍동 43번지 외
10 등록문화재 제416호	2008.10.17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디젤電氣機關車 2001號)	부산진구 범천동 1210
11 등록문화재 제494호	2012.04.18	부산 전차	서구 구덕로 동아대학교박물관

표 1. 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현황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참조, 문화재검색, 2012, 4

자율성을 인정하여 상업시설, 전시 공공시설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새로운 보존방법이다. 2012년 8월 기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보호받는 전국의 근대문화유산은 총 504개가 있다.

한편 최근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2003년으로 원도심지역인 중구와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과 지역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부산의 근대역사건조물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4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4개 대학 7개의 연구실이 공동으로 부산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작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14개의 근대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²⁾ 이와는 별도로 2011년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19건의 근대문화유산을 목록으로 정리한 바 있다. 종류별로는 건축물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항만·철도 등 산업구조물 55건, 생활문화유산 15건, 역사유적 7건, 인물유적 3건으로 지역별로는 중구가 39건, 기장군이 37건, 강서구가 34건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부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1건, 기념물 5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등록문화재로 임시정부청사를 비롯하여 총 11건이 등록되어 있다. <표 1. 참고>

2) 부산광역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보고서」, 2005



1897년 건립된 부산유치원



1900년대 건립된 남선창고



1959년 건립된 삼성극장

그림 1. 최근 사라진 부산지역 근대건조물

부 산 시 근 대 건 조 물 지 정 제 도

등록문화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2007년 부산지역 최초의 유치원인 부산유치원(1897)이 철거되었고 대표적인 근대식 창고였던 남선창고 역시 2009년 철거되었다. 또한 서민문화의 쉼터로 1944년 개관한 삼일극장, 1959년 개관한 삼성극장은 2007년과 2011년 연달아 철거되는 등 부산지역의 의미있는 근대문화유산들이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철거되고 말았다. <그림 1. 참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201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 의하면 문화재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를 제외한 부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아,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 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산시 근대건조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5년마다 1) 근대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근대건조물의 현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보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대건조물의 체계적 정비비를 통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2012년 5월에는 이미 조사된 219개의 건조물을 대상으로 ‘부산시 근대건조물’을 지정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평가작업을 시행한 바 있다. 평가기준은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그리고 보존 및 활용적 가치로 나누어 A등급 32개, B등급 81개, C등급 37개, D등급 14개로 구분하고 ‘부산시 근대건조물’ 지정후보 113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지난 7월 17일에는 근대건조물 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6곳을 최초로 ‘부산시 근대건조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6곳은 부산 최초의 민간 종합병원인 구 백제병원, 원형이 잘 보존된 일식가옥인 낙동강 칠백리 식당, 강서 농촌개발의 산 역사인 양덕운 씨 가옥, 한국전쟁의 역사적 증거물인 구 하리아부대 미군장교 클럽, 건축가 김중업 선생의 처녀작인 부산대학교 인문관, 근대 대학 도서관인 동아대학교 석당기념관이 다. <그림 2. 참고> ‘부산시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이들 근대문화유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가 높은 근대건조물에 대해서는 매입 또는 임대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화유산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의미와 가치가 상충되기도 하며 입장에 따라 보존보다는 청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기존의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

은 공익적 혹은 공공적 측면에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적 정서와 의미를 갖는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의 경우 도시재개발과 정비사업 등에 의해 많은 근대문화유산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일부는 상업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보존 활용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사업 혹은 관광사업에 있어 근대문화유산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서 이들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마저 상실되고 있다. 이는 근대문화유산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활용방법으로, 활용 이전에 먼저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적절한 가치를 위한 조사와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정문화재는 해당 건조물의 보존을 위한 수리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지원되지만, 근대문화유산이 대부분인 등록문화재 혹은 ‘부산시 근대건조물’의 경우 공사비의 일부만 보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혜택보다는 문화재로서의 제약을 먼저 인식하게 되어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한된 보조금으로 공사를 완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못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존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이들이 갖는 가치와 의미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대문화유산이 갖는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활용에만 치우쳐 조금하게 무리한 공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이 갖는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보수공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대학교 인문관



동아대학교 석당기념관



구 백제병원



구 미군장교 클럽



낙동강 칠백리 식당



양덕운 씨 가옥

그림 2. 부산광역시 지정 근대건조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물리적, 경제적인 근대문화유산 보존방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역사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포함하여 향후 그 가치가 예상되는 모든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문화를 공유하는 각각의 개인이 그 대상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이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보존의 주체도 공공에서 민간에 의한 보존활동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즉, 제도적 보존에서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보존방법으로 옮겨 갈 때 진정 우리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이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부 산 의 근대 문화 유산, 군집(群集)의 미학 美學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문화재청 전문위원
ICOMOS-Korea 위원,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1

근대도시는 풍요로운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도시나 미래지향적인 현대도시의 개념과는 달리 다소 질곡의 역사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어느 정도의 자립과 강성의 힘을 보유했던 국가들에 있어 근대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가던 희망의 개념이었다면, 전근대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들의 근대는 두려움과 희생의 개념이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근대라는 개념도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자의에 의한 개방과 산업화가 아니었기에 근대라는 이름으로 취해졌던 대부분의 것들이 고유한 우리 것을 내어 놓게 했거나 빼앗아 갔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근대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곤 한다. 그래서 근대화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는 하나, 전해지던 전통을 대치(代置)하거나 대체(代替)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 것을 잃어버리게 한 개념으로 이해되곤 한다.

우리의 근대에 대한 판단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대부분 잠식당해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근대는 순조로이 전해지던 문화전통의 단절과 정신구조의 왜곡, 전통적 공간구조(도시, 마을 등)의 훼손, 자생적인 개혁(근대기) 기획의 상실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남아 있다. 물론 도움을 준 것도 있다. 나라(조국)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강하게 생겨났고, 뭐든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승부욕과 경쟁력 발현의 힘을 제공한 점이다.

#2

부산은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도시이다. 그래서 부산은 대한민국의 근대역사와 그 커를 같이 하며, 많은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 버리고 싶었던 일제강점기의 온갖 결과물들이 광복과 근대화의 인프라와 사회체제, 공간조직, 건축물과 장소들과 맞닿아 있거나 연이어 있다. 또한 지난 36년간의 암울했던 상황에서 움직였던 민초들의 공동체적 활동과 6.25전쟁의 후유증에 대한 극복 과정이 지난 60여 년 동안 부산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일상과 사건의 배경이 되었고 또 근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잊고 싶다는 이유로 부산 역사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얽힌 근대를 빼거나 들어내 버린다면 지난 60여 년 동안 스스로 쌓고 만들어 온 우리의 진짜 근대역사와 공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부산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 왔다. 이 시간은 부산을 근대도시임에도 근대역사를 느낄 수 없는, 근대도시임에도 근대문화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 기억상실의 도시라는 혹평까지 들으면서도 부산은 근대도시로서의 위상 회복에는 소홀했다.¹⁾

2012년 8월 현재, 본 글의 주제인 근대문화유산²⁾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산의 현장 상황은 매우 열악해 보인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공공(부산시)의 관심은 현장과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들도 개발로 인한 해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근대문화유산을 지키자는 막연한 구호는 떠돌아다니지만,

1) 정동, 인사동, 북촌, 삼청동과 성북동에 이르는 근대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는 서울, 근대특별시를 추진 중인 대구, 창고관련 산업유산 재활용의 국내 최초 사례인 아트플랫폼과 차이나타운을 명소로 탈바꿈시킨 인천 등에 비해 근대도시를 추구하려는 부산의 노력은 미약했다. 물론 영도다리, 경남도청(현 동아대 박물관), 보수동책방골목 등을 복원하거나 리모델링하기도 했지만 모두 시민의 발의와 민간이 시작한 일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부산광역시근대건축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지정 근대건조물(6개소)을 확정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된 것과 산복도로, 광복동, 대청로, 북항 등 개발대상으로 분류되는 도시 곳곳에 재생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2) 근대문화유산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삶과 풍경 속에서 누적되고 적응되면서, 현재 삶의 바탕을 이루고 온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조금 더 좁혀 보면, 근대문화유산은 지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추억거리이자 지향점이 되는 '지역의 흔적과 기억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은 큰 차원에서 논하는 지역 역사나 관광 발전의 대상이기 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문화적 향취를 찾고, 지역과 장소 중심의 지역 청조를 유도해 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록부와 동네 곳곳에 군집으로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

#3

부산세관, 상품진열관, 조흥은행(부산지점), 백산상회, 남산창고, 부산부청, 부산역, 부산유치원. 모두 사라진 유산들이다. 이뿐일까. 지금도 이름 모를 소소한 근대의 흔적과 기억들이 부산의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다.

다양한 높낮이를 가진 지형, 급작스런 전쟁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비계획적인 주거군, 크고 작은 항구와 포구 등으로 이루어진 부산에서 근대문화유산들이 가지는 총체적 이미지는 무엇일까. 강력한 상징성과 섬세한 맥락적 조화로 대변되는 서양의 근대도시들과는 분명 다르다. ‘무리지어 군집(群集)을 이루어 표출되는 집합미’ 정도는 어떨까.

각각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무리지어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근대의 풍경은 근대도시 부산이 가진 우월한 차별성이다. 구릉지의 낮은 단독주택군, 원산업(물류업, 조선업, 수산업)을 지원하는 항구의 창고들과 각종 산업유산들, 원도심 가로 곳곳에서 발견되는 근대풍의 연도형 상가군, 산복도로와 영선고개길에서 만날 수 있는 1~2층의 적산가옥들과 근대건축물들. 이뿐 아니다. 3~4개에서

186개에 이르는 계단들과 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수천 개의 골목길들과 이에 얹힌 동네풍경과 골목문화, 세계 5위권의 물류업과 운송업을 지원하는 각종 교통인프라들(철도, 역, 고가도로, 터널 등), 부산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온 각종 테마를 가진 재래시장들과 스토리가 담긴 길들, 60~70년의 역사를 가진 큰 공원들 등.

모두 땅의 생김새와 높낮이, 부산의 도시산업과 생산, 부산사람들의 공동체적 삶과 결합되어 있는 낡고 오래된 것들이다. 문화재나 유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애매하여 지키거나 보존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자칫 가만 두거나 한눈이라도 팔라치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부산에서 근대도시의 위상을 지켜가는 일은 무척 어려워 보인다. 겉으로 쉽게 표시 나는 랜드마크적인 유산의 수는 부족하고 도시개발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항구 곳곳에 군집으로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부산에 있어 근대문화유산은 특별한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일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늘 다니는 길, 각종 생산의 현장 자체가 부산의 근대문화유산이 되어야 한다.

도시 어디에서나 근대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게 하려면 유산의 개체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수를 늘릴 수는 없다. 유일한 방법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대폭 넓히는 일이다. 비(非)문화재이지만 근대의 기억을 품고 있는 생활과 생산, 그리고 산업현장과 동네문화, 근린환경까지도 근대문화유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대부분은 모여 있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들이다. 개별 단위로는 현대도시에서 개발의 힘을 이길 수 없는 하찮고 소소한 것들이다.

또한 넓은 면과 선으로 펼쳐져 근대 풍경을 이루고 있는 유산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는 ‘문화적 풍경’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 현대도시에서 근대문화유산은 독특한 ‘문화적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부산의 전체(모두는 아닐 것이다)에서 근대의 향취를 풍기게 할 수 있다면 요즘 한창 이야기 하는 도시재생은 그저 따 놓은 당상이다.

부산의 근대 이미지를 지탱하고 있는 군집형의 근대문화유산 모두는 부산의 미래 자원이고 희망의 자산이다. 남겨두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시대에서 살아갈 후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넘겨주어야 한다. 남겨둔 낡고 소소한 군집의 기억들과 흔적들이 부산 미래의 빛나는 보석으로 변신할 그날을 진중하게 기다려 보자. 지금 부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Criticism & Review

Close Review

아트쇼부산 환상에서 깨어나서 / 이수진

『열린아동문학』,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신한 몸짓 / 배혜경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할매의 노랫자락-영화 「할매」 / 차민철
같은 눈높이에서 다각도의 희망을 꿈꾸다-문화매개공간 ‘쌈’ / 우승인

여름, 공연, 열기, 그리고 성숙한 관객들
「2012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 김남석

부산의 생활 속 작은 음악회를 생각하다 / 윤성원

아트쇼부산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수진

경성대 및 부경대 문화관련 강의
산복도로 1번지 공공미술 인문학감독

오랜 ‘강남스타일’. 최근 대중가요계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의 노래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이의 노래와 춤을 직접 패러디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고 있고 그 조회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국내 대중들도 놀라고 대중가요 관계자들도 놀라고 있는 중이다. 순식간에 싸이는 어마어마한 돈방석 위에 앉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그의 인지도를 높였다. 사람들의 놀라움은 부러움으로 그리고 선망으로 변한다. 글로벌한 성공이라는 후광에 한 번 노출된 싸이가 이후 노래를 생산한다면 이 세계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자본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글로벌(GLOBAL)–시장(MARKET)’이라는 요술방망이가 휘두르는 효과에 홀린 것은 사이만은 아닐 테다.

2012년 6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부산 ART-SHOW¹⁾가 열렸다. 청년작가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시키고 부산아트쇼가 만든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신작을 보기 위해 뉴욕이나 런던의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부산을 찾았으면’하는 ‘소박한 바람’이 아트쇼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에 아트쇼는 ‘시작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아트페어’를 롤 모델로 삼았고, 참가갤러리의 ‘40%를 해외갤러리로 구성’했다.²⁾ 한마디로 부산아트쇼의 고지는 글로벌(GLOBAL)–시장(MARKET)이다. 30억 원의 매출과 3만 명의 관객으로, 아트쇼는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

반면, 이런 저런 말들도 들려온다. ‘차라리 참여하지 말 걸’⁴⁾, ‘역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까’⁵⁾. 아트쇼에 참여했던 부산 작가들의 말이다. 고이 “포장되어 돌아온 작품들을 좁은 작업실로 다시 옮겨 넣으며 심란했던 마음을 말하는 H선배……, 여러 미술관과 비엔날레 등에 초대되면서 자신의 작업 성격이 어떨지 그리고 아트페어의 속성 또한 잘 알고 있고……, 그는… 미술작품이 혹은 작가가 시장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못내 아쉬워”⁶⁾웠던 것이라고 김성연은 말한다.

부산아트쇼에 따르는 이 상반된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제적인 아트쇼로 거듭남과 동시에 부산 미술계에 생기를 돋우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30억 원의 매출고를 올리며 글로벌 시장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부산미술계를 이끌어갈 작가들의 마음에 आरो새겨진 이 찌뚱한 반문을 아트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 지역작가의 방을 더 많이 제공한다지만 부산미술에 생기를 불어넣는 비책은 못 되는 것 같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적 아트페어로서, 아트쇼에는 이미 이러한 역설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아트페어는 화랑이나 화상, 수집가 및 미술관계자들의 거래의 장으로서 주로 화랑들의 협력에 의해 구축된다. 거래의 촉진과 확장, 화랑 간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경매회사의 미술시장 장악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⁷⁾ “아트페어의 레벨은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갖추었는지와 거물급 컬렉터들이나 미술계 인사들을 얼마만큼 불러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⁸⁾ “페어의 수준을 가늠하는 자리에 예술품 자체에 관한 어떤 객관화될 만한 준거가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⁹⁾

- 1) 국내외 포함 72개 갤러리, 참여 작가 약 500명과 약 2,000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 2) ‘‘안의 글들은 『ARTSHOW BUSAN 2012, 전시도록』, p. 8 참조.
- 3) 2만 9천여 명의 관객이 몰렸고, 290건 31억 원어치가 팔렸으며, 서울의 학교재나 일본의 고바야시 갤러리처럼 대형 화랑의 실적도 좋았지만, 부산 지역 화랑도 선전했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613000046>)
- 4) ‘차라리 참여하지 말 걸’이 아니었을까. 덕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꼼꼼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아트페어에 등장하는 작품답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완성도 있는 작품도 많았지만, 작품의 내용보다 애써 최근 트렌드에 맞춘 듯한 작품도 많았다. 또한 유명작가의 작품은 동시에 여러 갤러리에서 내걸고 있어서 유명세에 쓸림현상은 여전히 보였다. (김경화, 「아트쇼와 예술의 정치화」, 부산민예총, 『떠들썩』 http://talk.openart.or.kr/gnu/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70&page=2)
- 5) 김성연, 「장터에서」, 『B-ART』, 2012, p. 2.
- 6) 위의 글.
- 7) 심상용, 「글로벌 아트페어 비평적 읽기」, 『미술이론과 현장』, 제6권, 2008, p. 56.
- 8) 앞의 책, p. 61.
- 9) 앞의 책, p. 61.

아트페어가 거대한 미술-시장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술시장에서 교환-거래는 이중적 구조를 띤다. 겉으로 보기엔 예술품이 교환되는 것일 뿐이지만, 그 속에서는 교환된 것이 예술품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 얼핏 보면, 예술계로 자본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런 자본의 운동 속에서 예술의 가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예술의 존재론적 위치가 변하는 것. 예술이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눈치를 보며 자본 증식을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 예술과 자본의 위치 전도. 이것이 바로 예술이 처한 위기다.



주최 측의 의도야 어쨌든, ‘세계적, GLOBAL’이라는 간판은 예술의 존재론적 위치전복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작동한다. 아트쇼를 통해 세계적 작가가 탄생하면 그 작가는 스타-작가라는 영웅의 위치를 부여받는다. 부산아트쇼의 초기 바람대로 이 세계적인 작가를 보기 위해 스위스나, 런던, 프랑스의 아트페어 관계자들이 이 스타-작가를 보러 오게 된다. 거대 자본과 함께 말이다. 작가-지망생들은 아트페어에 진열되고 간택되길 욕망하고 세계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진정한 작가가 되기를 욕망할 것이다. 부산의 작가들은 세계의 작가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본이 요구하는 작업을 내면화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려야만 한다. 개인에게 스타-작가는 영광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아트쇼가 생산한 스타-작가의 효과는 예술과 작가의 존재론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피카소는 아프리카의 원시조각과 가면 기법을 통해 미지의 세계와 맞서, 대면하는 예술의 역할을 인지했다. 예술-작가는 자신이 처한 세계와 대면하는 존재지, 세계-적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예술-작가는 세계와 대면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는 존재지, 외부적 요건을 의식하거나 겨냥해 그 방법을 단순히 복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로써, 예술은 인간이 세계와 대면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주고 들려준다. 이는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유한 역할이다. 어떤 예술작가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 효과로서 발생한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기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술은 다양성을 지향하지만 자본의 논리를 쫓아가는 대중가요는 대중성과 용이성 그리고 균질성을 지향하게 된다. 싸이의 노래가 성공하고 이와 비슷한 이류작들이 마구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노래들은 대중가요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은 다르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하기 방식, 효과에만 예민한 예술은 그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다.



부산아트쇼는 SHOW가 아니라 ‘ART’ 쇼이고 아트쇼가 아니라 ‘부산’아트쇼이다. 시장-SHOW의 논리에 관대하게 되면 ‘ART’는 쇼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물론, 아트쇼를 통해 부산미술시장이 더욱 활발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산아트쇼에서 많은 예술품들이 거래되었다고 해서 부산 미술계가 실질적으로 좋아진다고 할 수 없다. 미술시장의 부활이 곧 미술계를 발전으로, 대 자본의 유입이 부산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환상이자 자기최면이다. 내년을 기약하는 부산아트쇼가 아트보다 쇼를 전면화하겠다고 선포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인 아트페어를 뒤따르는 것에만 전념하지 말고 부산작가들의 정서를 훑고 지나가는 찔끔한 반문에도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부산 미술시장과 미술계의 발전을 어떻게 매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



『열린아동문학』,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신한 몸짓

배혜경

동화작가, 창작동화집 『착한 아이 사세요』외, 부산아동문학인협회 이사



열린아동문학관

부산에 닳을 내린 『열린아동문학』

계간 『열린아동문학』은 시인이자 동시인이신 故 유경환 선생님께서 1998년 창간하신 순수 아동문학지다. 선생님의 간간하신 성품은 작품 선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열린아동문학』을 우수한 작품들이 넘치는 좋은 읽을거리로 만드셨다. 그러한 까닭에 나이를 더하며 자라는 『열린아동문학』이 함께 성장하는 어린 독자들은 물론 아동문학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2007년 유경환 선생님이 타계하시고 현재 주간이신 배익천 선생님께서 『열린아동문학』을 이어 받으셨다. 서울에서 탄생한 잡지가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부산에 새롭게 닳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배익천 주간님의 아동문학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산 유경환 선생님의 당부 때문이었다. ‘한국아동문학계의 큰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배 주간님은 1974년 한국일보신춘문에 동화 『달무리』로 등단한 이후 오로지 좋은 동화 빛기에만 매진한 장인이다. 그의 철저한 장인정신은 우리 부산에 기반을 둔 『어린이문예』를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으며 이는 척박한 지역 문화의 발전은 물론 한국아동문학의 발전에도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배 주간님의 이러한 행보는 계간지 『열린아동문학』을 바르게 키워나갈 다음 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었다.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신한 몸짓

문예지 발간이 순수 의지만 갖고 될 만큼 현실이 녹록치가 않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열린아동문학』이 이러한 고민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데는 방파제 홍종관 사장님의 도움이 컸다. ‘관포지교’를 능가하는 홍종관, 배익천 두 분의 오랜 우정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돈독함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배 주간님이 『열린아동문학』을



열린아동문학 잡지

떠맡자 흥 사장님이 선뜻 제작비를 내놓았고 이렇듯 두 분 ‘홍배지교’가 만든 『열린아동문학』은 어느덧 사춘기를 맞으며 순항 중이다.

사춘기는 신체 발달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다. 사춘기의 『열린아동문학』도 변모를 거듭하며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첫째로 『열린아동문학』은 원로, 신인을 불문한 아동문학인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 작품의 장르 역시 아동문학에 한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다. 둘째는 독특한 원고료 지급 방법이다. 대개의 잡지는 보내온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지만 『열린아동문학』에서는 제철에 맞는 음식과 식품으로 원고료를 대신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성껏 작품을 쓴 작가의 수고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다. 청어, 멸치, 참기름, 다시마, 청도 곶감, 김장김치, 조선된장…….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 같은 원고료는 작가들로 하여금 작품 생산의 보람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더욱 좋은 작품에 매진케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는 열린아동문학상 시상식이다.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산 177번지에 위치한 열린아동문학관에서 올해로 2회째 열린아동문학상 시상식이 치러졌다. 열린아동문학상은 1년간 『열린아동문학』에 실린 작품 중에 동시와 동화 각각 1편씩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편집위원과 자문위원들은 이 상의 공정성을 위해 수상작 선정에 엄청난 고심을 거듭한다. 시상식은 전국의 아동문학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바탕 벌이는 잔치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시상금 외에 지급되는 상품 역시 독특한 원고료 못지않게 매력적이다. 쌀, 이불, 참기름, 옷감, 그림, 그 외 각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그것이다. 이처럼 수상자와 관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열린아동문학상 시상식은 『열린아동문학』에 좋은 작품을 싣고 싶다는 주간과 발행인의 소박하지만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한국아동문학인협회가 매달 선정하는 ‘이 달의 우수작품’에 『열린아동문학』에 실린 다수의 작품이 이름을 올리며 기쁨을 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열린아동문학관이다. 그곳은 작가들로 하여금 꼭 받고 싶은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열린아동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20년 전 산

시상식



열린아동문학관 내부



밑에 딸린 밭이 있는 땅을 사서 산을 정원으로 삼으며 동화를 쓰려던 배 주간님의 꿈은 현재에 이르러 5만 2,800m² 의 산에 열린아동문학관 및 동시동화나무의 숲이 자라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에서 발로한 공간 확보의 차원과 는 거리가 멀다. 넉넉해진 그 공간에서는 열린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를 비롯한 연간 18명의 아동문학인들의 이름을 단 나무들이 심고 가꾸어지고 있다. 나무들이 전국 아동 문학인의 이름으로 풍성한 숲을 이룰 때 동시도서관, 동화도서관, 그림책도서관, 공룡도서관(배익천 주간님은 고성공룡엑스포 홍보대사이다) 등이 그 숲에서 어깨를 견고 함께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소그룹 별로 나는 작은 도서관이라도 짓고 싶습니다. 대 여섯 그루의 나무 아래 나무 주인들의 도서관을 만들어 그들의 작품을 진열해 두고 독 자와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배 주간님의 소망이 동시동화 나무의 숲에서 푸르른 나무만큼이나 싱그럽고 아름답다. 『열린아동문학』의 이러한 변모는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신한 몸짓임에 틀림없다.

지역 문화인이 가꾸고 보살펴야 할 『열린아동문학』

『열린아동문학』은 이제 부산을 텃밭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적 아동문학지가 되었다. 척박한 지역 문화의 토양에 어렵게 뿌리를 내린 『열린아동문학』이 튼실한 나무로 자라 게 하기 위해 우리 지역 문화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그 첫 번째는 우수한 작품 을 생산해 내는 일이며 두 번째는 『열린아동문학』을 향한 작가 개개인의 무한한 관심과 애정일 것이다. 그것은 곧 『열린아동문학』이 어떠한 비바람에도 견디어 내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 문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고 가꾸어 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

동시동화 나무와 새김석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할매의 노랫자락

「할매」

연출: 김지곤 / 다큐멘터리 / 2011 / 53 min

차민철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아니 부산만을 생각하더라도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 중 하나는 ‘재개발’이다. 곳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건물들이 새로 생겨나고 ‘신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구역들이 사방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걸 보면 ‘재개발’이 현재 부산의 화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지곤의 중편 다큐멘터리 영화 「할매」는 대한민국의 ‘산토리니’를 지향하며 이른 바 ‘산복도로 르네상스’라 불리는 부산형 도시재생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영도 일대의 산복도로에 위치한 작은 마을과 그곳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고 있는 할매니들의 삶을 진정성 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사라지는 공간 속에서 만난 기억들

산복도로를 비롯해 도시 재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산의 오래된 마을들은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해 왔다. 「할매」 역시 산복도로의 한 마을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영화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의 차원을 넘어선다.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감독에게 집 근처의 산복도로는 막연한 기억의 대상이었고, 감독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카메라를 통해 그 막연한 기억의 궤적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탐색해 나간다. 그리고 그 막연했던 탐색작업은 기억의 장소에서 만난 할매(들)를 통해 구체화되며, 감독의 기억과 할매(들)의 기억은 소멸의 위기에 있는 공간의 기억으로 옮겨져 새로운 영화적 의미를 만들어 낸다.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할매」는 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지만, 그러한 시선을 전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정치적·사회적 주제 의식에 작품의 일차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할매」 속에 등장하는 공간이나 사물들은 TV 저널리즘이 재개발을 둘러싼 주제를 다룰 때 주제와 메시지를 부가적으로 조명(illustration)하거나 설명(explanation)하기 위해 촬영한 해당 공간의 이미지와는 다른 층위를 지닌다. 즉 도입부에서부터 등장하는 공간과 사물들의 인서트는 ‘인서트’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할매(들)와 더불어 시간의 기억을 머금은 영화적 의미를 생산해내는 주제적인 존재로 승화된다.



탁주, 라면, 소주와 할매들의 은밀한(?) 공동체

「할매」는 형식적으로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탁주’, 2장은 ‘라면’, 그리고 3장은 ‘소주’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리고 이 제목들은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마을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할머니들의 삶의 기억들과 그것이 환기하는 정서들, 그리고 영화작업 과정까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탁주’는 할머니들과 제작진의 만남과 손님을 대접하려는 할머니들의 따뜻한 인정을, ‘라면’은 가난하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삶의 의지를, ‘소주’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삶의 터전과 지난 세월에 대한 할머니들의 회한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할머니들은 급하게 경사진 좁고 구불구불한 길 위에 뺄없이 들어선 낡은 집들과 그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어있는 수많은 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철거 반대나 주거권 같은 특정 현안이나 운동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느 철거촌이나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이다. 물론, 할머니들에게도 마을의 재개발과 보상 문제, 마을의 공공시설과 복지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녀들의 공동체적인 삶이 이러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향훈을 바라보는 그녀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세월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이며, 이러한 공감대와 공동체적인 삶은 음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녀들의 공동체적인 유대는 멀리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마을 구석구석의 이어진 좁은 길들처럼 은밀하게 존재한다.

할매의 노랫자락

「할매」는 김지곤 감독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 연출작이다. 2008년의 데뷔작 「낮선 꿈들」을 비롯해 「오후 3시」(2009), 「길 위에서 묻다」(2009)에 이르기까지 사라져가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시적인 관조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 김지곤은 「할매」에서 처음으로 관조를 벗어나 대상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산복도로 마을의 공간 구석구석을 고집스러운 만큼 끈질기게 담아낸 그의 카메라는 여전히 관조적이지만 그 집요함은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거칠지만 정감어린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래하는 할머니들과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소통하면서 외부자적인 시선의 ‘관찰’과 내부자적인 정서의 ‘교감’ 사이에서 변주된다.

영화의 엔딩에 등장하는 텅 빈 공터에 버려진 낡은 냉장고는 도입부와 수미상관을 이루지만, 도입부의 공사장 소음과 바람소리가 재개발로 인한 파괴의 정서를 환기하는 반면, 바람소리와 공사장 소음 대신 엔딩 쇼트의 이미지에 흐르는 할매의 구슬픈 노래자락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할매의 바람과 그를 지지하는 감독의 마음을 은밀하게 표출한다.

「할매」에서 김지곤의 카메라는 낡고 버려졌지만 그 틈새마다 삶의 이야기들을 간직한 곳곳의 공간들이 할머니들이 살아온 시간들과 더불어 그 자체로 소중한 기억들임을 알고 있다. “여기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집 뜯어서 집 지을 일 있나?”라는 할매의 한 마디는 그의 카메라에 오롯이 담긴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 굽이굽이 깃든 삶의 작은 기억들과 함께 명분적인 재개발 반대 메시지나 관객의 연민에 의지하기 쉬운 다큐멘터리의 함정을 뛰어넘기에 충분하다. 「할매」는 ‘산복도로’라는 부산만의 공간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들을 통해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거시적인 현상의 한계에 대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울림을 주는 미시적인 에세이 영화다.

2011년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할매」는 2011년 제37회 서울독립영화제, 2012년 제17회 인디포럼, 2012년 제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에 초청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할매」는 ‘산복도로’라는 부산 특유의 공간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작고 여린 존재들을 통해 이야기한 작품이다. 앞으로도 ‘산복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 싶다는 감독의 의지가 실현되어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다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

같은 눈높이에서 다각도의 희망을 꿈꾸다

문화매개공간 ‘쌈’

우승인
독립영화감독



수영은 요즘 말로 ‘핫(Hot)’하다. 광안리와 해운대의 중간 지점이라 여름 맞이 관광객들이 북적인다. 팔도시장과 수영사적공원이 부산의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올해 들어 부쩍 눈에 띄는 완공된 신축 건물과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이 최근의 부산을 보여주는 듯하다. 수영은 부산의 현재를 상징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

도시철도 2, 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의 ‘만남의 장소’는 마치 수영교차로를 뚫 뚫었는데, 아침을 여는 직장인들의 바쁜 걸음부터 시작하여 오후에는 어르신들의 쉼터로, 저녁에는 집으로 향하는 이들의 종착역 같은 곳이다. 그 곳에서 4번 출구 방향으로 걸음을 조금만 옮기면 문화매개공간 ‘쌈’ 을 만날 수 있다.

수영을 꼭 닮은 연결고리의 공간

문화매개공간 ‘쌈’(Suyeong Station Art Mediate space : 이하 ‘쌈’)은 2009년 12월 문을 열었다. 부산교통공사가 후원하고 문화예술사업단 BIKI가 운영하고 있는 ‘쌈’은 유동 인구가 많은 수영역을 지나는 시민들의 소박하고 편안한 쉼터이자 지역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쌈’의 외형은 일반적인 북 카페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쌈수다’는 올해 6월말에 100회를 맞이한 ‘쌈’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쌈수다’는 부산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해 온 3, 40대 문화예술인 1인을 초대해 자유롭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다. ‘수다’라는 이름에 맞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른 맥락의 질문이나 이야기 도중에 불쑥, 하고 끼어드는 행위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쌈수다’만의 매력이다. 한 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관심사의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식 – 스타카토를 닮은 그 매력은 매주 화요일마다 쌈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교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한 해 동안의 ‘쌈수다’를 담은 책이 연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100회 쌈수다



그 외에도 2주마다 새롭게 선보이는 지역 신진작가들의 미술 전시,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하는 시민문화예술강좌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에술관련 모임 시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대관도 가능하다.

‘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전시를 감상하는 것이 모두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수영역 부근의 직장인들이 이른 점심식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와서 한 숨 돌리고 가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여름휴가 시즌에는 광안리나 해운대로 피서 왔던 관광객들이 이동하다가 ‘쌈’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부산에서의 추억을 들려주고 가기도 했다.

만들어 가는 문화, 생활로 바뀌는 문화

‘쌈’에서는 음료를 마실 때 500원짜리 일반 컵을 사용한다. “컵은 사용하시고 화장실에서 씻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가우뚱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취지를 듣고 나면 누구나 동감하며 ‘쌈’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로 바꾼다.

‘문화’는 폭 넓고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너무나 견고하다. 그래서 쉽게 섞일 듯하면서도 함께 즐기기에 은근히 어려운 것도 바로 ‘문화’이다. ‘쌈’의 앞에 붙는 이름인 ‘문화매개공간’이라는 정의는, 이러한 문화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한 시민과 문화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이다.

지역문화가 삶의 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총체라는 주장에 동의는 하면서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통합 발전과 공생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문화를 다루는 일은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공공성 확보라는 궁극의 목표를 지향한다. 그러나 ‘점진적으로’와 ‘모두 함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는 주민 참여조차도 단기적 성과주의에 매몰시키곤 한다.

‘쌈’ 전시



최근에 읽고 있던 책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도시재생사업단 위임/한울아카데미/2012년 발간)에서 굉장히 동감했던 단락이다. ‘쌈’이 문을 열던 당시, 나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탄생의 어려움을 옆에서 봐 왔었다. ‘쌈’은 많은 사람들의 품앗이 같은 도움으로 만들어졌고, 열악한 재정과 인력 속에서 조금씩 한 발을 내딛어가고 있다.

문화중심지인 경성대학교와 센텀시티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수영은 오히려 문화적으로 풍요롭지가 않다. 그래서 ‘쌈’이 요구받는 지점과 해야 할 역할도 많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 적은 인력, 열악한 재정의 3박자는 ‘쌈’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의 요구 지점보다는 점점 느리게 갈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쌈’을 비롯하여 부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의 공통 한계점인데,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과 시민들의 참여를 동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쌈’은 문화예술과 사람을 뿌리로 한 생활문화공간이기 때문이다.

점점 높아만 가는 부산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정서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같은 눈높이로 나란히 맞춰 소통하게 해주는 장(場) – ‘쌈’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재료로 오늘도 좋은 요리를 만들고 있다. 처음 시작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간에서 다시 다름을 파생하는 즐거운 레시피. 그 파동은 느리며 잔잔하지만 여운이 오래가는 초여름의 바다를 닮았다. 🌻🌻🌻🌻🌻🌻



여름, 공연, 열기, 그리고 성숙한 관객들

「2012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김남석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연극평론집 「빛의 유적」



더운 여름, 닫힌 공간, 새로운 탈출구

언제부터인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해가 짙게 내리 쬐던 여름의 절정.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땅 위에는 솟아오르는 지열로 이글거리는 학교 운동장. 이때 교문 너머로 한 대의 소방차가 진입하고, 이유 없이 하늘을 향해 운동장 가득 물을 뿌리던 장면. 파란 하늘과 빨간 소방차, 누런 운동장, 회색빛 학교 건물, 그 사이로 반짝이며 떨어지는 물 줄기들, 아니 물방울들.

밀양은 전국에서도 덥기로 첫 손가락에 드는 지역이다. 산자수명하고 도학이 높은 마을이지만, 바꿔 말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방으로 빠져나갈 곳이 마땅하지 않고 양반 가문 의식 때문에 남 눈치 보지 않고 놀기도 힘든 곳이다. 이곳에 13년 전에 한 무모해 보이는 연극인이 들어왔고, 그를 따라 일군의 연극꾼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폐교를 수리하더니 연습장을 지었고, 그 옆에 극장을 하나씩 짓는가 싶더니, 여름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극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할 일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함께 살고 뛰고 구르고 소리 지르는 것이 못마땅했다. 모르긴 몰라도 연극촌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른다.

그러던 밀양이 이제는 달라졌다. 지역 주민들은 연극촌의 입성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여름마다 몰려드는 관광객, 아닌 관광객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다. 도학과 한 여름 밤의 공연이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 일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끼와 열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공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준 높은 관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어려운 공연을 보여주어도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즐거운 공연 앞에서는 파안대소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유서 깊은 고장 밀양은 이제 또 하나의 자랑을 안게 되었다.



연극 「주머니 속의 연가」



연극 「푸른 하늘 은하수」



2012년의 밀양 축제와 그 규모

2012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7월 20일에 개막해서 8월 5일에 폐막했다. 개막작 「이순신」을 필두로 하여 총 43작품(프린지 공연 제외)이 이 기간 동안 공연되었다. 외국에서 초청된 작품도 있었고, 한국의 지역 극단 작품도 있었다. 경연 부문에 참가하여 최고의 작품으로 선출되기 위해 애쓰는 젊은 연출가들의 작품도 있었고, 자신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위해 관객들을 직접 만나려는 기성 연출가의 작품도 있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로만 이루어지는 섹션도 있었고, 일본 공연을 위주로 하는 ‘일본 연극 주간’도 별도로 있었다. 무엇보다 이미 기업적인 규모로 성장한 연희단거리패의 작품들이 대량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풍성한 볼거리는 밀양 축제가 내세울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짧은 기간 동안 밀양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은 거의 50여 편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국제 규모의 축제로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외국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밀양 축제에 참가하는 작품들은 국내외에서도 상당한 기량을 인정받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공연하고 서로 관람할 수 있다면, 극단과 연극인 상호 간에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객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연극인들의 기대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연 내외적 효과보다 밀양 축제가 가지는 진실한 장점이 있다. 그것은 성숙한 공연 문화와 연극에 대한 관객의 이해이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밀양의 여름은 연극축제에 적당한 조건이 아니다.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다고 해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이다. 비록 KTX 역이 있다 해도 밀양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며, 지역민 자체의 폐쇄성도 상당한 지역이다. 하지만 그들은 연극을 통해 날씨도, 교통도, 지역 정서도 해소해가고 있다. 그들은 연극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객과 함께 성장하는 밀양 축제

1920년대 연극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관객들에 대해 토론(토의)하곤 했다. 그들은 관객을 계몽하여 궁극적으로는 연극을 이해할 수 있는 관객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려운 연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을 비난하거나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관객들은 이러한 연극인들의 태도를 인정하기도 했고 동조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러한 태도에 반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들은 관객들이다. 그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키지 않고는 어떠한 논리나 이론 혹은 당위성도 성립될 수 없으며, 진실한 감동이나 심도 있는 작가 의식을 동반하지 않고는 그들을 연극 무대로 불러올 수도 없다.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한국 연극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밀양의 축제는 어느새 이 일을 해내고 있었다. 삶과 철학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담고 있었던 「주머니 속의 연가」(호키토 게이코 작, 이윤주 연출)를 묵묵히 지켜보는 이들도 그 관객들이었고, 찜통더위 속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에 나가는 한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푸른 하늘 은하수」(김미숙 연출)를 지

켜보는 이들도 그 관객들(어린이와 부모들)이었으며, 지난 시대의 아픔을 낫두리 쏟아내는 손속의 연가(연극 「어머니」)를 보기 위해 매진에 매진을 거듭하던 이들도 그토록 불만을 쏟아내던 그 관객들이었다.

이들은 삶의 고단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모여 자신들의 일상과 삶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울고 웃고 떠들고 감탄하기도 했다.

무엇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확산일까. 연극이라면 넌더리를 내고 연극이라면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이 폭염의 여름에, 더운 극장 안에 자발적으로 앉게 만든 것이 혹 그 확산은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윤택과 연희단거리패는 지역 문화 전도사라고 불려도 좋지 않을까. 🌀🌀🌀🌀🌀🌀

부산의 생활 속 작은 음악회를 생각하다

윤성원
음악학박사
생활음악연구소장

사진제공 해운대문화회관, 갤러리 움



지금, 삶의 의욕이 필요한가? 그럼,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이나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리스트의 「라 캄파네라」를 바로 들어보라. 혹은 무심히 보아오던 길거리나 정원의 나무가 계절의 새 옷을 입는 모습을 강하게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드뷔시의 「프렐루드」 1집 중 낙엽이나 소팽의 「첼로소나타」, 슈베르트의 가곡 「세레나데」, 그리고 알베니스의 「탱고」를 들어보라. 또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가? 이 때는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이나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을 들어보라.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그렇다면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잭 니콜슨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라는 시디를 사용해 보라. 음악이 있으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가 이럴 땐 이런 음악을 들어보라고 권하지만, 음악 선택의 포인트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클래식이나 대중음악이나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냥 내가 들어서 이러한 혹은 저러한 느낌을 받았고, 내 기분이 좋아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뿐이다. 이것이 나의 취향이다.

취향이란 게 원래 제멋대로인 것이니 어찌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 사실 음악에 있어서 취향이 특이한 사람은 많다. 예컨대, 음악가라고는 하지만 유명하지도 않고 거지같은 행색에, 남자인데도 키가 겨우 150센티미터 조금 넘어 아주 작고, 살쥔고, 말도 잘 못해서 청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뭘 말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모임에 오면 늘 구석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저래가지고 음악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나 싶은 사람이지만, 내 취향이라고 느끼면 정기적으로 나의 저녁시간을 빼서 돈을 줄만큼 좋아하게 되고, 내 귀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든다고, 이 사람이 최고의 작곡가라고 두둔하게도 된다. 물론 이런 취향에 따라 작곡가는 그 사람을 위해 노래를 만들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 사람에게 정신적 친구들을 모아 주기도 한다. 그 사람은 볼 품 없는 작곡가이지만 작곡가와 함께 하는 그 밤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주는 작곡가와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 모임은 장소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이름도 아닌 작곡가의 이름으로 명명되어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라고 불렸다. 슈베르티아데는 일명 슈베르트의 친구라고 불리는 패턴(patron) 집단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 있는 음악가라고 한다면 어디 슈베르트뿐이었으랴.



음악은 늘 패턴에 의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성립된다. “음악은 귀족적이다.” 그런데 요즘처럼 테크놀로지가 발전하여 음악의 무한 복제와 재생이 가능한 시대에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악의 시작에서부터 존재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다면, ‘음악은 나와 동떨어진 별천지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사실 음악은 귀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음악이 지금 나의 공간과 생활 속, 내 눈 앞에서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패턴이 되어 듣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 취향대로……. 요즘 부산에서는 가능하다. 살롱 음악회나 하우스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커피를 좋아하는 나는 우연히 맛있는 커피 집을 소개 받았고, 그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고, 어느 느지막한 오후 늘 가듯이 편안한 복장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요량 삼아 찾아갔는데, 그 커피집에서 소리 한 마당을 볼 수 있고, 드럼 소리에, 바이올린과 피아노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평소의 모습 그대로인데, 음악을 향해 집중해 있는 공간은 청자인 내가 알고 있던 공간의 개념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또 다른 즐거움과 호기심을 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그곳에서 패턴이 된다. 좋다. 부산에는 살롱음악회나 하우스음악회가 열리는 공간은 의외로 여러 곳에 있다. 취향 따라 대연동 21세기 건물 뒷골목에서나 부산대학 앞 한 길 모퉁이 카페에서 재즈를 만날 수도 있고, 남산동이나 문화회관의 커피 집에서 클래식을 만날 수도 있다. 또 서면 복개로 한 쪽 끝이나 광안동 북 카페에서 국악을 만날 수도 있다. 심지어 하우스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공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으로 7회의 공연을 열었고, 그 이름을 하우스콘서트라고 했다. 연주자가 해금 강은일부터, 첼로 양욱진, 기타 드니 성호, 바이올린 김영욱 등의 대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객석에 위치해야 했던 내가 연주자들과 같은 위치에 앉아 감상했던 일이다. 매 연주회마다 마찬가지로였다. 연주자와 함께 무대 위에 앉아 연주자 가까이에서 그들의 작은 숨소리를 듣고 함께 호흡하며 내가 마치 음악을 만드는 느낌이었다. 콘서트는 성공적이었다.



나는 사실 생활 속 작은 음악회를 생각하면 금정수요음악회가 떠오른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금정수요음악회는 300석이 조금 넘는 객석을 가진 아담한 무대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연주자들이 왔다갔고, 작지만 이제는 부산의 상징적인 음악회이다. 이 음악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음악회를 열면서, 전문해설자를 사용하여 객석과 무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음악인들을 주로 무대에 세워 나와 내 이웃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객석과 무대의 소통은 음악이 더 이상 음악인들만의 것이어서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음악감독의 생각이란다. 나는 이에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이 금정수요음악회가 음악에 대해 관심 없는, 패턴이 되어보지도 못한, 음악적 취향

을 가지지 못한 구청 행정 관료가 실무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없어질 위기에 이르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살롱음악회와 하우스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음악과 음악문화사업이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방법을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머리를 흔들며 느껴본다. '생활 속 작은 음악회…….' 어찌 되었건 생활 속 작은 음악회는 나를 다독이며 나의 삶을 의욕 충만, 활기 충만하게 한다. 당신도 음악이 흐르는 바로 그 주위로 가서 느껴보라. 물론 취향대로, 행정가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음악의 가치를 아는 패턴러에 의해 음악사는 흐르는 법이니. 🌸🌸🌸🌸🌸🌸



부산 갈맷길

유승진

역사를 그려내는 만화가.
《포천》, 《한성시대》, 《무비유환》
2010 독자만화대상 신인상

Culture+

+사람

화제의 예술인

조각가 김정명과의 인터뷰 / 이영준

젊은 그대

‘단지’ 치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열한(소설가 서진) / 권유리아

+공간

부산의 독립영화공간

국도&가람예술관과 아트씨어터 씨앤씨 / 김형찬

+네트워크

국제교류에 대하여 / MATSUO TOSHIKAZU

+세계문화

몽골의 새해는 여름에 시작된다 / 강인욱

조각가 김정명과의 인터뷰

이영준

큐레이터,

김해문화의전당 전시교육팀장

「플레이보이」 잡지를 찢어 아크릴상자에 넣어 밀봉한 다음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다. 돈을 넣은 사람은 이리저리 상자를 흔들며 그 속에 있는 누드를 감상할 수 있다. 「창75번지2통 10반」, 이 작품은 최근 젊은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197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김정명의 작품이다. 한국현대미술의 무거움을 감안할 때 이 작품의 존재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 뿐 아니다. 마네의 「풀밭위의 식사」를 패러디했던 「풀밭위의 식사 이후」, 사람들은 사라지고 풀밭만 남아있다. 모두 어디로 갔을까? 물감의 속을 헤집어 보여주었던 「해부도」, 캔버스의 프레임을 해체했던 「프레임 & 캔버스」 시리즈, 색수열리티와 유머가 인상적으로 결합된 「손가락」 시리즈, 세상을 담았던 「포켓」 시리즈, 수많은 예술가들을 한자리에 초대했던 「한 일 만년 더불어……」, 미술사를 갈기갈기 해체했던 「책」 시리즈, 인간에 대한 금기의 역사를 탁월하게 형상화했던 「엘로우라인」, 퇴직금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 제작했던 「머리」 시리즈, 김정명의 작품은 시작과 끝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형상화 해 왔던 김정명. 그는 한국 현대미술사에 있어 무척 예외적인 존재다. 이처럼 다양한 작업스타일을 일관되게 보여준 작가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를 만났다.

이영준 안녕하세요.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김정명 어서와. 오느라 고생 많았지? 너무 더우면 반바지 입고 해수욕장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해운대 재미가 쏠쏠해(웃음).

작가는 1945년 3월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이곳저곳 사생대회 원정도 다니고, 포스터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에 입문하게 된다. 당시 만났던 스승은 작고하신 **故송혜수 화백**.

김정명 송혜수 선생님을 만나서 그 문하에서 그림을 배웠어. 그 당시에 부산에 이렇다 할 화실이 없었거든. 송혜수 선생님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어. 일본 동경제국미술학교를 나왔고 장욱진, 김병기, 김환기, 김영주 등과 더불어 '50년 미협'을 창립했던 분야야. 이종섭과 일본 유학시절 때 친교를 맺었고, 소와 여인을 담당하게 그리는 화풍으로 유명하신 분이시. 그분을 통해 마네, 모네도 알게 되었고 모딜리아니, 샤갈을 배우면서 예술이란 것에 더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되었지. 허황, 김응기, 이동순, 안창홍, 이강윤, 박태석, 전준자, 최수화, 한영수 등이 이 화실 출신들이야. 모두 뛰어난 작가들이지.

그 순간 작가의 작업실에 놓인 뼈들이 눈에 들어왔다. 진짜 뼈인 줄 알고 유심히 보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또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김정명 아마 2006년 일거야. 말풍선 시리즈를 한참 작업할 때 같은 맥락에서 간간히 노트를 하며 드로잉을 해봤어.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어긋남을 보았듯이 많은 곳에서 도가 지나칠 정도의 인면수심을 느꼈거든. 개망나니, 개수작, 개소리, 개 같은 세상, 개 같은 인간, 개X, 개XX 같은……. 엄청나게 나쁜 것만



떠남감을 받아야 하는 개. 하지만 개는 무지막지한 동물이 아니야. 인간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인간 가까이 있으면서 충복을 다하는 개를 그런 취급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배은망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개는 뼈를 좋아하고 인간은 돈을 좋아하잖아. 개 닮은 사람을 생각하며 돈 대신 뼈다귀를 전이시켜 본거지.

작가의 상상력은 끝이 없어 보인다. 어떤 모티브를 잡으면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메모하고 드로잉하고 작업으로 옮긴다. 뼈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볼 기세로 매일매일 그려왔던 드로잉들을 펼쳐 보여 주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은근히 비트는 특유의 유머가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드로잉 중간 중간에 금박을 입힌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김정명 아! 그거. 얼마 전 송혜수 선생님의 작품을 한 점 구했어. 근데 그 액자가 오래된 거라 금박이 아주 두터워. 조금씩 벗겨진 것을 작품에 응용한 거야. 그래서 이 작업들은 송혜수 선생님이 내게 준 선물처럼 느껴져(웃음)…….

Big Heads 시리즈



그리고는 계속해서 최근에 작가를 사로잡고 있는 모티브인 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김정명 뼈는 인간(동물)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형상이야. 이를 통해 생사와 영혼 그리고 신앙, 평온, 자유, 욕망, 비움 등 여러 가지 사유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이 작품들을 '마음의 정화를 위한 드로잉들'이라 부르기로 했어. 생각의 자유로움을 위해 편한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들이지. 10월말 경에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있는 갤러리들에서 초대전이 계획되어 있어. 그동안 해운 드로잉 중 뼈다귀 시리즈로 전시를 준비 중이야.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얼마 전 작가는 「Big Heads」 시리즈를 발표했다. 건축물, 쓰레기, 브랜드, 만화, 성 등 12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진 인간의 머리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신화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 이 작품들은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었지만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백화점에서 이 시대 최고의 명품(?)들과 함께 전시되었던 신세계 전시는 가장 압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장사도'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뼈다귀 시리즈



손가락 시리즈



손 시리즈

김정명 처음엔 이렇게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하다 보니 작업욕심이 나더라고(웃음). 퇴직금도 내 것이고, 작품도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퇴직연금 일부와 연금을 빌미로 이리저리 융통하여 무리를 했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세 개가 다섯 되는 그런 욕심이 겨우겨우 열두 개에서 멈추었어. 이 작품들은 비좁은 산성마을에 옹크리고 있다가 다행히 장사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 작품은 놓이는 장소가 매우 중요해.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장사도를 방문했는데 “아! 이곳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지. 덕분에 인터넷에도 자주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게 되어서 좋아.

김정명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계명대학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부산 청년 비엔날레 운영위원 및 위원장,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부산미술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지역의 현대미술운동을 주도했던 미술동인 ‘포인트’와 ‘워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산비엔날레를 탄생시켰던 부산청년비엔날레나 부산미술계의 현안을 꼬집기 위해 만든 부산미술포럼은 명예라기보다는 외면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다. 후학을 가르치는 일과 작업하는 일에만 매진했던 작가는 별다르게 화려한 직함이 없다. 얼마 전 정년퇴임을 한 작가에게 인생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정명 작가는 작품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야.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 하나에만 미쳐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미술 정치도 하고 싶고, 다른 욕망을 꿈꾸게 되면 오히려 이것저것 다 놓쳐버린 어정쩡한 반풍수 꼴을 면치 못하게 돼……. 그리고 예술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이중섭의 「소」나 고희의 「해바라기」는 그들의 삶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왔어. 나 또한 삶을 그르치지 않는 자세로만 산다고 하면 그 또한 교육자로서의 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관했어. 나를 세우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금정구에 있는 산성마을에 가면 조그만 미술관이 있다. 김스아트 필드 미술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곳에서 전시했던 작가들의 면면은 놀랍다.



김정명 내 작품이 천 점이 넘다 보니, 관리가 엉망진창이야. 이것을 집사람과 정리 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Work, Point 등 그룹을 만들고 참여하다 보니, 작가 모두의 순수열정들이 너무 좋아. 지금도 그 시절이 눈에 어려. 작은 공간이나마 같이 공유하며 부산 미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으로 집을 내놓고 생활비를 쪼개 운영하고 있어. 하지만 호사스런 사치로 미술관을 한다는 시선 때문에 속이 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산을 가다 만나는 뜻밖의 미술관을 반가워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또 금방 힘이 나곤 해. 사실 이 미술관을 운영하느라 집사람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재를 털어 마련한 김스아트필드 미술관에서는 정혜련, 변대용, 김은주, 임상규, 김수은, 방정아, 진성훈, 김성연, 감민경, 심준섭, 박자현, 김성철 등 젊고 유망한 작가들의 개인전이 열렸고, 「The Head-인간의 거울展」, 「사물의 재발견展」, 「Face to Face展」과 같은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Beyond Media-김태희」, 「정만영展」을 준비 중에 있다.

김정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풍자적 전복과 비판정신(최태만)”, “상상적인 형상 속에 잠재한 틈 지기 시선(김해성)”, “경계를 혐오하는 유목적 기질(이동석)”,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야기되기도 전에 이미 상당히 포스트모던 했던 작가(조선령)” 등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작가의 의식은 성과 속을 넘나들고 도덕과 금기를 오간다. 작가는

생각의 뒷에 걸린 주제는 무엇이든 현실화 시키는 왕성한 소화력을 가진 작가다. 끝으로 작가에게 작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정명 글썽 미술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고쳐 나가는 것이라고 할까? 포켓, 쓰레기, 손가락, 머리, 말풍선(Empty) 시리즈 등등……. 문명 비판적이고 사유적인 작업도 많지만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작업들도 많아. 어쨌든 모두가 김정명의 마음이었지. 난 이런저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 그저 내 생각의 그물에 걸려든 것들을 하나하나 형태로 만들 따름이야. 그 속에서 나는 세상과 나를 발견하게 돼. 내 작품 속에 내 미래가 있어.

작가를 만나면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내가 얼마나 많은 ‘버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작업은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다. 촌철살인의 위트와 풍자는 현대미술의 무거운 중압감을 날려버리는 시원함이 있다. 또한 그의 솔직한 어법은 예술인 척하는 혹은 잘난 척하는 인간의 허위의를 유쾌하게 비튼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청년이다. 그리고 그의 작업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었다. 🌀🌀🌀🌀🌀🌀

‘단지’ 치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열한

소설가 서진과의 인터뷰

권유리아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문화평론가



빗방울이 거센 날, 달리는 차 앞유리에는 폭우가 퍼붓는다. 미끄러지듯 빠르게 도착한 광안리, 한바탕 내리는 비로 피서객들을 몰아낸 광안리 백사장은 한적했다. 계절을 짐작하기 어려운 시간들, 서진 작가도 그런 느낌이었다. 작가는 작품으로만 말을 하지 않는다.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쉽게 보이는가 하다가 불현 듯 어려워지는 서진 소설의 모호함을 또 다른 피부가 되어 버린 그의 안경에서 본다. 서진 작가의 얼굴을 그리려면 반드시 안경 앞과 뒤를 잘 관찰해야 하리라. 안경은 수동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피부로 외관에 작용한다. 모범과 도발, 생활과 일탈의 느낌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는 안경은 그 자체가 한 편의 소설, 서진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날도 안경을 유심히 보았다.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에서 『하트브레이크 호텔』로 가면서 지하의 습습한 삶이 지상의 구원으로 이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낀 안경처럼 서진의 소설은 여전히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모호한 감정선을 그려내고 있었다.

권유리아 어떤 절망을 주로 그리는가?

서진 나는 엄청난 자살, 죽음,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맨날 맨날 하루가 똑 같고 나는 뭐하고 있나. 일상에 절망하는 거 있죠?

권유리아 변화의 여지가 없는 일상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닌가?

서진 그렇죠. 소설을 쓰다 보면 왜 이따 걸 쓰고 있지? 뭔가 변화할 수 없는, 읽어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절망하죠. 일상,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는 오버그라운드로 진출했다고 하지만, 삶은 아직도 언더와 오버, 불안과 평화가 묘하게 공존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것을 왜일까. 삶에 대한 무덤덤함은 결국 문학의 무덤이다. 문학은 변화 없는 일상에 대한 불만에서 만들어진다. 일상의 작은 지점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관찰할 때 평범한 일상은 뜻밖의 불편이 된다. 면역 없는 고통, 변화 없는 일상에 대해 날선 감각을 갖는 것은 서진이 작가로서 아직도 젊다는 증거다. 누구말대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작가가 여행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떠도는 유전자가 이런

삶의 구석구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성동력이 되는 것 같다.

서진 작년하고 올해는 하와이에 갔었어요. 가는 길에 또 뉴욕에 갔었고, 이번에 사막도 갔다오고, 캘리포니아에 한 2주 정도 서너군데 사막을 갔었어요. 모하비사막도 가고.

권유리아 그게 소설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국적인 느낌?

서진 여행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배경을 우리나라로 하면 뭔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판타스틱한 이야기를 하려면 황당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뻘하고, 그러니까 외국을 배경으로 하면 그런 제약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시나 공간에 대한 감각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로스앤젤레스라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도시의 공기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자가 알든 모르든 저는 하나의 완성된 분위기를 알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권유리아 ‘무국적’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무국적이라기보다는 이국적인 것 같아요. 낯설고 특이한 것에서 오는 기이함?

서진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작가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려면 하나의 판타지적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리얼하지만 리얼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리얼한데도 뭔가 리얼하지 않은, 언리얼리스틱한데도 리얼한,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여행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변화 없는 삶을 두려워하는 작가에게 여행은 변화를 요구하는 내적 충동질일지 모른다. 삶의 가치를 생산하는 절박한 몸부림일 수 있다. 사실 가치가 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질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을 뿐이다. 여행은 이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음을 그 안에 무엇인가 있다고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행은 인간을 오만하게 만든다.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대신, 보편적 삶 대신 자기 방식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오만함 말이다. 이방의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오만, 통각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만이다. 물론 이 오만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작가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므로. 그러고 보면 서진은 소설을 몸으로 쓴 셈이다. 몸이 거쳐 간 흔적을 글로



옮기고 있으니, 소설이 고역일 수밖에 없겠다. 서진의 소설이 쉬운 듯 하면서도 종이가 잘 넘어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작가는 스스로 팔라이터라고 하니 좀 이상하다.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소설, 활자를 통한 재미와 감동, 작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그의 문학적 신념이다.

권유리아 팔라이트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쉬운 소설은 아니예요. 소설이 대중적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매체활용과 대중적인 감수성이 강한 것 같아요. 매체에 대한 감수성을 자기방식으로 풀어놓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소설을 읽어 보면 쉽지는 않은데요.

서진 나는 하트브레이크호텔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근데 정작 읽으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어렵대요. 이게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책 낸 지가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 리뷰가 나올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저런 일 하다가 다시 한 번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자기 글에 파묻히다 보면 대중적인 포장이긴 한데 읽어보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금 욕심은 있었죠. 기존의 서사방식으로는 안 가겠다는 생각은 있었죠. 그게 좀 안 됐나요?(웃음)

권유리아 왜 그럼 서진이라는 작가를 대중적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게 말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나는 대중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아도 대중적이라고 말해 버리면 알게 모르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대중적이라고 말해버림으로써 그렇게 당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선언의 힘이겠지요. 그 단어를 자기 것으로 선점해버리는 전략적 선언. 전 그게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서진 그럴 수 있겠네요.(웃음). 대중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겉만 대중적인 게 아니라 속도 대중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쉽게 써야겠다고요.

작가는 작품으로만 말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작품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다.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콘텍스트들이 작품이라는 텍스트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결정적 변인 중 큰 것이 바로 작가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의 말이다. 작가는 소설 자체를 통해서 하는 말보다 소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또 다른 소설을 쓴다. 중요한 것은 소설에 대한 작가의 ‘선언’, 즉 소설 밖의 소설이 독자에게는 실제 작품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진의 가장 큰 매력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능력이다. 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팔라이터를 지향한다. 그리고 대부분 복원더러다. 그러나 서진은 팔라이터, 그리고 복원더러라고 명명



함으로써 이 명칭은 오롯이 서진 고유의 것이 되었다. 이제 작가는 또 다른 작품과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서진 『하트브레이크 호텔』은 소설집이니까 몸풀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장편소설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 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장편소설의 포지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책을 낼 수 있을 건지, 이 길로 계속 가야되는 건지 안 가야되는 건지…… 읽자의 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별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최근 소설 하나를 탈고했어요. 내년쯤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청소년소설이예요. 포지션을 조금 바꿨어요. 내가 생각해도 성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보이쉬하고 청소년적인 특성이 남아있고, 그런 감성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소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간 참 기발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하지만 서진작가의 그간의 작업들을 단순히 기발하다 혹은 치열하다는 정도로 말하는 것은 의미를 너무 축소한 것이다. 한국문단과 출판계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진은 ‘단지’ 기발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발하다. 물론 작가 자신이 한겨레문

학상이라는 제도권 공모전을 통과한 것도 사실이고, 그의 소설이 이해에 내공을 요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적인 출판시스템을 넘어 누구나 소설가가 될 수 있다는 열린문학시스템으로 대중문학체계를 새롭게 구축해가는 선구적 노력은 분명 한국문단과 전체의 다가올 지형변화를 예고하는 것일지 모른다. 머릿 속의 공리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작가 서진에게서 결국 치열성은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라는 사실을 배운다.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읊에서 갑의 포지션을 지향하는가가 진정성의 척도다. 서진의 경우 이 꿈의 양이 언더에서 오버를, 그리고 읊에서 갑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점프력을 만들어낸다. 가장 훌륭한 소설은 바로 작가의 삶이다. 집과 차 대신 여행에 인생 전부를 걸었고, 이 여행의 찰진함이 문학을 예술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이행시킨 공로는 분명 서진의 것이다. 그래서 서진의 선언들은 신뢰할 만하다. 작가의 치열한 삶, 그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이유다.

내리던 비가 그쳤다. 광안리 브람스 커피전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내리는 비에 백사장에 모래가 튀는 모습이 영화의 느린 화면처럼 아름다웠다. 3층은 서진 작가의 지정석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몹시 탐났다. 🌀🌀🌀🌀🌀🌀

부산의 독립영화공간

국도&가람예술관과 아트씨어터 씨앤씨

김형찬
대중음악평론가



국도 & 가람예술관 영사실

2010년 12월 부산에서 음악영화 3편이 거의 동시에 개봉되었다. 한국의 록밴드 Y.B.의 유럽공연을 담았던 「나는 나비」, 한국의 재즈음악인 1세대를 담았던 「브라보 재즈라이프」, 비틀즈의 청소년 시절을 영화화했던 「노웨어 보이」 등 다양한 음악영화가 그것인데 대중성은 별로 없는 영화인지라 빨리 내려 버릴까봐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관람했다.

서면 CGV에서 관람했는데 금요일 저녁이라 그래도 관람객이 조금은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도 비틀즈의 이름값이 있으니 「노웨어 보이」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람객 숫자가 이런 수준이라면 일주일 동안 상영해봤자 관람객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영화는 상업영화관 측에서는 영업을 위해 상영하지 않는 쪽을 택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된다.

한국의 영화문화가 상업영화로의 쏠림현상이 강한 현실에서 비상업적인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관객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독립영화관 혹은 예술영화관이다. 이런 현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여서 2007년에야 명동의 중앙시네마에 인디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동지를 틀 수가 있었는데 2009년 정부가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시민들의 모금으로 올해 다시 장소를 광화문 쪽으로 옮겨서 재개관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하면 부산은 적어도 독립영화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울보다 훨씬 앞서고 또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1999년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서 시작된 시네마테크부산은 2011년부터 완공된 영화의전당 내로 들어가 적어도 국내에서는 최고로 좋은 시설을 가진 독립영화관이 되었다. 부산의 독립영화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2005년 폐관한 단관극장인 남포동의 국도극장이 2006년부터 부산국도예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재탄생했다. 이것마저 건물이 팔리는 상황에 이르자 2008년 대연동 문화회관 뒤에 있는 가람아트홀로 이전한 것이 현재의 국도 & 가람예술관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대청동에 있는 가톨릭센터 내에 있는 공연장 안에 2009년부터 아트씨어터 씨앤씨라는 독립영화관이 문을 열었고 중앙동의 예술창작공간 또따또가 내에 김희진 영화감독이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보기도문이라는 영화공간까지 합하면 부산에는 모두 4개의 독립영화공간이 존재하는 셈이다. 서울보다 일찍 시작했고 부산시의 지속적인 지원도 받고 있고 그 숫자도 적지 않으니 부산의 독립영화 공간은 여타의 도시들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저력이 부산이 현재 영화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 하겠다.

나는 직업이 대중음악평론가인지라 음악영화를 중심으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이런 독립영화공간을 자주 이용해왔다. 이 지면을 통해 국도 & 가람예술관과 아트씨어터 씨앤씨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국도 & 가람예술관은 대연동 문화회관 뒤편에 있다. 주택가의 골목을 걸어 올라가는 한적한 기분은 예술영화관 가는 느낌으로는 괜찮다. 붉은 색 벽 돌담에 예쁘게 영화안내판과 극장 간판이 걸려있다. 그런데 입구가 조금 험갈린다. 알고 보니 가람아트홀이 입구이다. 평소에 클래식공연장인 가람아트홀을 대관해서 운영하는 중이다. 입구 쪽으로 내려가니 좌우에 꽃과 넝쿨들이 늘어서 관객을 맞는다.



국도 & 가람예술관 입구



국도 & 가람예술관 매표안내

매표소는 그야말로 초미니 공간이다. 엉덩이만 대고 앉을 수 있는 좌석 3개가 실내휴게실의 전부이다. 밖에 화장실 옆 야외공간에 의자 몇 개를 놓아둔 곳이 또한 휴게실이다. 실내휴게실에서 커피와 과자를 팔고 있는데 과자들이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것들이라 조그만 것에서도 정성이 엿보

인다. 143석의 실내는 옆으로 긴 공간이라 어디서도 스크린이 잘 보이고 스크린과의 거리도 가깝다. 음향시설도 원래 공연장의 음향시설이 좋아서 훌륭하다. 디지털 영사기까지 갖추고 있으니 독립영화관의 시설로서는 여러모로 좋은 편이다. 아쉬운 것은 관객편의시설인데 이것은 본래 공연장을 임대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



국도 & 가람예술관의 정기상영회들이 재미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화끈한 극장은 부산의 독립영화들을 상영하는 시간이다. 영화상영 이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어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정진아 프로그래머가 아쉬움을 표현한다. “부산의 영화감독들이 자기 영화에 대한 홍보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상업영화가 아닌 이상 자신의 영화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텐데 홍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겸손을 미덕으로 내세울 일은 아닌 것 같다. 죽어서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살아서 한 명의 관

객이라도 공감하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 예술가로서 산다는 것의 기쁨이 아닐까?

그밖에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토요독립애니상영회가 있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11시50분에 열리는 올빼미 상영회라는 특별한 상영회가 있다. 영화 오타쿠들이 평소에 방구석에서 즐기던 영화로 낯밤 새우기를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다. 3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간식과 음료와 담요가 지급되고 빙고게임도 있다. 그래서 요금도 12,000원이다. 그런데 영화 제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미 봤던 영화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조건은 정말 영화 마니아가 아니면 수락하기 힘든 조건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3편을 자지 않고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잔다고 눈송주는 사람이 없지만 영화 마니아로서 조금 쪽팔리는 일이다. 그래서 마니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미리 충분히 잠을 자두고 몸만들기를 해야 한다. 이런 신경전도 영화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다.

국도 & 가람예술관의 이런 영화문화들은 영화 관람객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방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대표 정상길 씨는 영

화애호가 중 한 사람을 프로그래머로 임명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던 정진아 씨가 프로그래머이면서 입구에서 매표도 맡고 있다. 소비자를 가장 우선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피부에 느끼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무늬만 소비자 위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또한 모습이 다르다. 여타의 아카데미처럼 유명한 인사를 모셔서 한 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 중 누구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같이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비즈공예, 핸드메이드 책 만들기, 바느질, 영화 토론, 글쓰기 등을 같이 배우며 공유하는 것이다. 참가비는 매회 5,000원을 받아 국도에 기부를 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영화관이 독립영화제작에 사용함으로써 영화 관객과 영화인들 간의 문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엿보인다.



아트씨어터 씨앤씨(Cinema & Culture)는 대청동의 가톨릭센터 1층의 공연장을 임대하여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본래가 대중음악과 연극공연장이었던 곳이라 로비에 충분한 휴게공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로비에서 우크렐레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교습활동을 하고 있다. 200석의 좌석이 있는 실내는 스크린과의 거리가 멀다. 무대가 있기 때문이다. 음향과 화질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

아트씨어터 씨앤씨의 대표 이상영 씨는 「기억 메모리즈」, 「잠자는 남자」 등 두 편의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출신이다. 2002년부터 부산에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상영운동을 했었고 그런 인연으로 국도 & 가람예술관의 전신인 부산국도예술관의 프로그래머를 맡았던 사람이다. 대표가 영화인 출신이라 이곳은 영화의 공공적인 기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영화바우처를 운영하고, 복지관에서 영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으로 영화문화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영 대표의 관심은 보다 영화적이다. 2010년에 제1회 부산의 국민영화제를 통해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사회를 조명하기도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권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네팔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의 독립영화 공간들은 양적으로 적지 않고 질적으로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국도 & 가람예술관은 임대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한 영화관 운영과 좁은 편의시설이 문제이고 아트씨어터 씨앤씨는 노후화된 시설이 문제다.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민간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부분은 부산시의 지원일 것이다. 1,600억을 들여서 남 보기에 번듯한 영화의전당을 짓는 일에는 손발을 뺏고 나선다. 그러나 영화도시로서의 부산 영화문화의 초석이 되는 독립영화공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돈 달라는 아쉬운 소리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따져보자. 부산이 영화도시가 될 수 있었던 뿌리는 부산의 자생적인 영화공간과 영화동호인들이었다. 1980년대 경성대 앞의 프랑문화원의 영화동호회 시네클럽에서 미래의 부산의 영화인들이 잉태되었고, 그들이 현재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영화계의 인재로 성장했다. 그들이 이루어낸 영화제와 부산영화문화의 중요한 소비자들은 시네마테크부산을 비롯한 부산의 독립영화공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이 부산의 영화동호회와 독립영화공간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받은 것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국제교류에 대하여

MATSUO TOSHIKAZU
NPO 법인 쇼세카이 이사장

번역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류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이렇게 공유할 기회가 생겨 참으로 기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교류의 시작은 부산의 한 문화교육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적,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저 혼자만 느끼기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이해의 고리를 펼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NPO(Non-Profit Organization, 특정비영리활동)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제교류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일단심으로 연결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国際交流について

理事長 松尾俊和 (MATSUO TOSHIKAZU)
NPO法人 翔青会

今まで10年以上韓国との交流に携わってきた私の意見を述べさせて頂く機会をくださった財団法人釜山文化財団の皆様へまずはお礼を申し上げます。交流に至るきっかけは、釜山の教育者との出会いでした。そこで人物交流や文化交流の大切さを学び、私だけではなく広く理解の輪を広げたいとの思いからNPO法人を設立いたしました。実際にフィールドでの活動で私が感じた事は、“人と人の繋がり”は一旦心で結ばれると決して切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言葉の壁を乗り越えようと全身全霊を傾け相手の一挙一動

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벽을 넘고자 몸과 마음을 다해 상대의 사소한 동작 하나 하나를 애정으로 눈여겨보고,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곧 상호이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간의 한일관계는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 양국 국민의 의식도 크게 변화했고, 특히 지금은 한국의 영화와 음악이 일본의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 간의 교류에 있어 제대로 된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이나 음악을 포함한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는 것 보다는 양 문화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다름을 인식하는 과정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기도 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국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나 존경의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で何を思っているのかを理解しようとした時にお互いの心が通じるという事がわかりました。それが相互理解であると思います。10年の間に日韓関係は目覚ましい変化を遂げ、両国の国民の意識も大きく変化しました。それは、映画や音楽を通じ青少年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しっかりとした交流の場を提供することにより、教育や音楽を含む異文化の比較や、生活文化の違い、思考の違いなどを感じ取る心を育てることが出来ます。ただ、韓国や日本の文化に触れたという経験よりも、より一層大きく青少年の心に働きかける事が出来ると考えます。そうした他国文化との比較により見えてくる自国の文化の良さを再認識することにも繋がり、互いの文化の相違点を感じ、他国への理解や尊敬の念を育むことが出来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私自身の体験として釜山市の子供たちをホームステイで入入れをしました。最短で2泊、最長で9カ月、共に生活をしましたがどの子も韓



저는 부산의 어린 학생들이 저의 집에서 홈스테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짧게는 2일, 길게는 9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곤 했는데, 홈스테이를 했던 아이들은 그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평평 눈물을 보입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몸짓과 손짓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저로 하여금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떠맡고 갈 보물이기에 끊임없이 밖으로 나와 다양한 국제 감각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건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일상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인적, 문화적 교류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실행하고 있는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가느다란 한 가닥의 실과 같지만 그 실이 또 다른 유대의 끈을 뽑아 엮어가면서 마침

내 단단하게 이어진 밧줄을 엮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혹은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간혹 국제교류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깊은 이해로 엮어진 튼튼한 밧줄만 있다면 그런 위기의 상황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제교류와 평화행동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니며, 둘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은 정말 가족과 같은 존재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저를 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교류도 사람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국제교류의 참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바탕이 되었던 그 동안의 많은 시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지 않아 긴 이동에 불편함이 많았을 그 시기에 목숨을 걸고 선린우호의 정신을 실현한 조선통신사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과 일본의 우호친선에 힘을 쏟아 국제사회

国へ帰るときには声が抑えられないほど泣いてしまします。言葉も通じない子供たちでしたが身振り手振りで気持ちを伝えようと必死です。余計に愛おしく思えます。こんなに愛おしい子供たちが育つ韓国をととても大切に思えます。子供たちはこれからの未来を背負っていく宝です。どんどん外へ出て国際感覚を身につけて欲しいと願います。その為には各国が平和で安心できる国際社会の建設が必要であり、それは大人の義務であると考えます。平和を願う気持ちは誰しもが同じでそれは人類普遍の原理原則です。私はそれらを形にするために人物交流、文化の交流という手段を選びました。私達民間レベルでの交流は例えるなら1本の糸のようなものです。しかし、細い一本の糸でも数多く強い絆で紡いでいく事によりやがては、強固なロープになりう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ロープさえあれば、たとえば政治的な理由や歴史認識・

解釈の違い、などで国交が遠く離れる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いつかは必ず引き戻すことが出来ると信じています。国際交流と平和行動は決して遠くにあるものではなく等しい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交流の中から生まれてきた人間関係で出会った人々は本当の家族のような存在であり、また相手もそのように接してくれます。この人たちへもしも災いが訪れるのなら、私は命がけで守りたい。心からそう思います。その思いが交流の意義であると考えますと同時にその思いに至ることが出来た時間は何物にも変え難い貴重な時間であったと確信いたします。不便な時代に命をかけ善隣友好の精神を、**厳しい行呈**で実現した朝鮮通信使に心より、多大な尊敬と感謝の念をおくりますと共に、さらなる韓国と日本の友好親善に力を注ぎ国際社会への貢献を目指します。最後になりますが財団法人釜山文化財団の皆様関係者の皆様へ何人もの学生が朝鮮通信使祝祭へ参加した事によりそ

에 공헌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일본 학생들이 부산의 ‘조선통신사 축제’에 참가하여 오래도록 간직될 가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승과 다복을 기원합니다. 🌸🌸🌸🌸🌸🌸

소세카이회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중심으로 사회교육 및 마을 만들기의 추진, 학술·문화·예술·스포츠의 진흥, 환경보전, 협력,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이다. 2008년 조선통신사축제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부산시로부터 고교생의 홈스테이를 정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れぞれが心の記憶に残る有意義な体験が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感謝と敬意を、又ご健勝とご多幸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몽골의 새해는 여름에 시작된다

강인욱
부경대 사학과 교수, 동북아시아 고고학 전공

나담축제, 몽골인을 하나로 만드는 용광로

징기스칸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닌 몽골이지만, 지금 지도를 펴 보면 무척 초라해 보인다. 현대의 몽골공화국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고구마처럼 끼여서 사방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현재의 몽골공화국은 실제 몽골이 살던 땅의 1/3도 안 되는 범위로 러시아의 몽골족은 자바이칼의 부리아트 공화국과 2개의 부리아트 자치주로 남았고, 중국 땅 안에 있는 몽골족은 ‘내몽골자치구’로 편입되었다. 몽골공화국의 인구가 250만에 불과한데, 중국 내몽골자치구는 적극적인 한족의 유입과 개발로 그 인구는 몽골공화국의 10배인 2,500만 명에 달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세 나라로 분리된 몽골족들은 언 어마저도 서로 달라지고 빠르게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여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의 몽골로 묶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나담축제이다. ‘나담’은 몽골어로 ‘시합’이라는 뜻으로, 여름에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남자들이 씨름, 활쏘기, 말타기 등 3가지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나담을 러시아 자바이칼에서 사는 부리아트 몽골족은 ‘수르하르반’이라고 하고 투바의 몽골족은 ‘나담’이라고 부르고 경기방법도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같은 축제이다. 현대화된 몽골에서는 각 도시나 마을 별로 7월 11~13일 사이에 열리는데, 특히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나담은 국가적인 행사로 수십만의 인파가 모이는 장관을 이룬다.

나담은 유목민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기원한 축제이다. 7월 초가 되면 전통적으로 몽골의 유목민들은 겨울 목초지에서 여름 목초지로 이동하면서 같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제를 열며 젊은이들의 힘을 겨루는 것에서 기원한 것이다. 영하 30~40도로 떨어지는 혹한의 겨울을 나고 온 천지가 푸른 풀과 꽃으로 덮이는 여름은 기껏해야 2~3개월 정도뿐이다. 태양이 작열하고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초원에서 겨우내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던 친척,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지난 1년간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흥겹게 힘겨루기를 하는 유목민의 전통이 바로 나담인 것이다. 유목민의 삶을 위해서는 너른 목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집안에 식구가 늘어나면 반드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유목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듯 피붙이 형제라고 해도 서로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져 살면서 서로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이들에게 나담은 우리의 설날과도 같은 의미였다. 이렇게 몽골 초원의 새해는 뜨거운 성하의 초원에서 시작된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나담축제

짧디 짧은 여름날에 모여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나담축제는 진정한 초원의 고난을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 나담축제에는 화려한 무대도, 경기장도 필요 없다. 그저 황량한 초원에서 말들이 달리고, 몸을 밀어내고 넘어뜨리는 씨름, 그리고 과녁을 놓고 화살을 쏠 수 있는 너른 들판만 있으면 그만이다. 경기의 규칙이

나 과정도 아주 단순하다. 웬만한 경기는 말로 진행되고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만은 더더욱 없다.

처음 나담축제를 접하는 한국인들은 많은 기대를 한다. 비행기 표와 호텔방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되어 버리고, 한두 달 전부터 몽골사람들은 마치 나담축제를 위해서 사는 양, 모든 화제는 나담으로 시작해서 나담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축제를 보면 참 허무하기 그지없다. 말타기는 별판 저쪽 어느 한 지점을 정하고 출발해서 사람들이 모인 결승점으로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결승점 근처에서 마치 마라톤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경계선 밖에 삼삼오오 모여서 수십 미터 앞에서 말들이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도 인파에 끼여서 잠깐 갈팡질팡 하다보면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면 볼거리가 끝난다. 씨름의 경우 수십 명의 씨름꾼들이 앉아있으면 그 앞에서 “어디 출신 누구……나가요.”라는 구호를 부르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커다란 운동장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씨름이 벌어진다. 또 축제치고는 먹거리도 단순하기 그지없다. 경기장 주변에 끝도 없이 펼쳐진 장터에서 파는 음식은 모두 똑같아서 ‘호쇼르’라고 불리는 군만두와 양꼬치 구이가 전부다. 호쇼르의 값은 한국 돈으로 500원 정도였다가 올해 1,000원 정도로 뛰는 바람에 나담축제 내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였다.





몽골 카라코룸에서 말타기 경기장면



여자궁사의 활쏘는 장면



나담축제에서 몽골전통음식 호쇼르를 만드는 장면



활쏘기 시합



울란바토르 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씨름경기

도대체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한 나담축제에 몽골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담은 험난한 초원에 일정한 거주지 없이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힘든 사투를 벌이는 유목민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이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언제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의 변화를 이겨내며 가축을 치고 사는 일상은 쉽지 않다. 축제는 풍요롭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힘들고 먹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축제를 만든다. 참으로 험난한 초원에서 삶을 영위하는 유목민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축제가 필요했고, 또 축제에서는 시험을 통해 초원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기술을 연마했다. 말타기, 씨름, 활쏘기는 강인한 초원의 전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었고, 몽골의 청년들은 나담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초원의 생존 기술을 익혀가며 강인한 전사로 거듭났다. 징기스칸은 허허벌판에서 일어나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들은 변변한 말타기 경기장, 훈련장 하나 없었다. 그들은 극히 소수의 병력으로 말 위에서 취사를 해결하며 끊임없이 이동하며 정벌했다. 화려한 원형경기장에서 서커스를 즐기듯 전차경기를 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로마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유목민의 축제에는 바로 소박한 실용성이 있었고, 이는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담축제, 초원에 꽃을 피우다.

몽골초원의 자연이 보여주는 색은 참으로 단순하다. 1년의 절반 이상은 눈으로 덮인 하얀 빛이다. 영하 30~40도로 떨어지면 대기 중의 수증기마저 얼어붙어 마치 안개가 덮인 듯 온 천지가 뿌옇게 된다. 그러다 4~5월이 되어 풀들이 자라면 온통 푸른빛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단조롭고 싫증도 금방 난다.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수도인 호화호트의 원래 몽골발음은 ‘허허허트’로 ‘푸른 도시’라는 뜻이다. 푸른 숲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황량한 초원에 ‘푸른 하늘’밖에 없어서 푸른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7월이 되면 초원의 온갖 풀들은形形色색의 꽃을 피우며 비로소 초원은 활기를 띤다. 짧은 7~8월의 몽골초원이 눈물 나오게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단조로운 1년을 기다렸기 때문일지도 모른

다. 단조로운 초원에서 몽골의 유목민들은 다양한 색으로 치장을 한 옷과 장식을 즐긴다. 평생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치장할 집이나 건물이 없으니, 아름다운 가구나 아기자기한 정원도 더더욱 필요 없다. 그러니 그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과시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몸과 말을 장식하는 다양한 장신구와 아름다운 색감이었다.

나담축제에 참여하는 사람과 말들은 아낌없이 다양한 색으로 치장을 했다. 씨름꾼들은 어깨에 자줏빛이나 푸른빛의 술대를 감고 머리에는 탑 모양의 모자를 쓰고 씨름을 한다. 말타기에 나오는 말과 기수는 다양한 원색의 화려한 장식으로 멀리서도 눈에 띈 정도다. 심지어는 불도에 정진하는 라마승의 자줏빛 가사도 푸르른 초원에서는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인다. 푸르른 초원에서 아름다운 장식과 색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몽골의 나담축제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다. 험난한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힘을 연마하며 또 자연과 동화되어 살던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정착민적인 허식을 탈피하고 실용적인 문화를 구축했다.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초원의 전사들은 자신의 몸과 말에 황금장식과 청동기로 장식을 했었다. 지금은 유물로만 남아있지만 수천 년 전 그들은 푸르른 초원에서 황금빛을 사방에 뿜내며 초원을 누볐을 것이다.

단순해 보이는 나담축제에는 수천 년 험난한 초원의 환경을 딛고 세계의 중심에 섰던 유목민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힘든 초원의 삶을 견디고 이겨내는 원동력은 화려한 볼거리와 무대가 아니라 강인한 무사의 정신과 자기의 이웃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사람 간의 정은 별로 없이 화려한 무대와 초대가수의 시끄러운 공연, 그리고 번잡한 장터의 먹거리로 사람을 유혹하는 우리네 축제와 많은 비교가 된다. 초원의 나담축제는 간결하되 화려하고, 단순함 속에 정이 넘치는 축제다. 9월이 되면 몽골초원은 벌써 아침저녁으로 추워지고 유목민들은 겨울나기를 위한 준비에 바빠진다. 앞으로 몇 개월을 눈 속에서 힘들게 참아야 하지만, 마음 속은 이미 내년 여름의 나담축제를 달리고 있을 것이다. 🌸🌻🌼🌺🌾

부산문화재단 NOW



2012 조선통신사 한일네트워크 및 新조선통신사 사업

2012년 5월 부산 「2012 조선통신사 축제」를 시작으로 한일 네트워크 사업과, 新조선통신사 사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활발한 국제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新조선통신사 사업〉

- －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2012년 2월~11월
연중 지역문화예술인을 일본 내 조선통신사 연구도시에 파견, 작품 창작활동 지원
- － 조선통신사 청소년 역사아트 캠프 7.23(월)~7.26(목)
부산지역 청소년(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과 일본 내 조선통신사 연구도시 및 예술공간 탐방

〈한일네트워크사업〉

- － 아리랑 마쓰리 8.4(토) ~ 8.5(일) 쓰시마시 이즈하라항 일원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국서교환식, 예술단공연 등
- － 바칸 마쓰리 8.25(토) ~ 8.26(일) 시모노세키시 일원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부산 · 시모노세키 문화교류공연

시 · 도 문화재단 대표자 간담회 개최

2012년 8월 22일(수) 오후 3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시 · 도 문화재단 대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 문화재단들은 시 · 도 문화재단 협의체 발족에 뜻을 모았고,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 12개의 문화재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시 · 도 문화재단 협의체 발족을 시작으로 문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과 협력을 모색 할 예정입니다.

행사일시 2012년 8월 22일
행사장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층 회의실



부산문화재단 하반기 공연 및 강좌 시작

상반기에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우리가락 우리마당」, 「토요상설」, 「달리는 부산문화」, 「시민 아카데미」가 하반기에도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부산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가락 우리마당(9/2~10/28)」, 「토요상설(8/25~11/3)」이 토, 일요일 용두산공원에서 개최되며,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부산문화(8/24~10/21)」가 부산 곳곳에서 실시됩니다.

‘치유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 「2012 시민 아카데미(9/5~10/17)」도 2차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l.or.kr)를 참고해 주세요.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FESTA

부산문화재단의 ‘2012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FESTA〉에서는 지난 8월 18, 19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을 전후로 광안리 해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의 그래피티 작업을 시도하는 「그래피티 부산」과 더불어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문화아카데미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을 부산대 앞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8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매주 화 · 목요일 저녁 7시~10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아요……

조은정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타지에 가서 산다는 엄마의 걱정과 정기적 월급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한 것에 대하여 친구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부산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낯선 공간에 온다는 그 설렘은 이제 낯선 감정이 되었다. 일상에 익숙해졌다는 것과 부산을 느끼는 감정이 무디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의례적인 대화가 오가기 마련이다. 부산 외 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에서 왔어요?”, “부산요.,” “부산 어디요?,” “해운대요.,” “바다가 보이겠네요.”라는 순서로 예외 없이 대화가 진행된다. 부산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의례적인 질문이 있다. “말투가 다른데 위쪽에서 왔죠?,” “대구역요.,” “부산에 오니 좋죠? 시원하고, 더워서 대구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사실 난 대구가 덥지 않았다. 부산에 와서 더위를 느꼈고 그 더위의 차이는 습도였다. 추위도 부산에서 더 많이 느꼈

다. 부산의 칼바람은 분지인 대구의 바람과는 달랐다. 사는 곳의 인상은 그곳을 떠났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산에 와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나는 부산에 고가도로와 산이 많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아니 생활상의 불편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동기어가 장착된 스포티한 자동차를 소지한 나에게 부산의 언덕배기 길들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한 달에 두 번이나 뒷걸음을 치게 한 두려운 길이 었다. 부산 길이 낯선 당시(물론 지금도 내가 가본 곳만 자신있게 가는 부산 길 초보의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어영부영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나의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뚫려있는 고가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방인’에서 ‘부산시민’이라는 인증표를 가지고 있다. 부산미술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고 부산말씨에 낯설어 하고 관광객처럼 부산지형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조금 편해졌다. 아직 싱싱한 회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유명한 동래파전도 먹지 못했고, 2층 버스도, 유람선도 타보지 못했고, 온천도 가보지 못했고, 집근처 장산도 완주해보지 않았고, 산복도로가 여전히 낯설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함께한다.

이제 나는 해운대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사는 곳에서 바다가 보이는 것은 아니고 부산은 산이 많으며 황령산에 가면 광안대교가 보이는 전망대가 있다는 것을, 밀면과 가장 곰장어가 유명하고 용궁사 근처에 해물짜장면이 맛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부산의 도로는 유턴하는 곳이 드물고 일방통행과 오거리, 육거리가 많으니 신호를 유심히 봐야 하고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는 해운대로 오는 길이 엄청 막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정석처럼 얘기한다.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부산에 처음 온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변했다. 당시 택시운전기사님께 개관한지 4년이 지난 공공기관인 ‘시립미술관’을 말해도 오히려 이방인인 나에게 그 위치를 되물던 그 미술관 앞에는 ‘시립미술관’이라고 명명된 지하철역이 생겼고 허허벌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과 고층아파트와 제1, 2 벅스코가 들어선 ‘비싼’ 땅이 되었다. KTX를 타고 서울까지 2시간 40분이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부산 사람들은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부가가치에 기대가치를 높였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부산에서 할 수 밖에 없던 일들을 서울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만 피서객이 문화시설을 찾지 않듯이(피서지에서 가까운 미술관에 피서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다면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름에 행해지는 수많은 축제에 과연 타지의 사람들은 얼마나 참석할까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은 얼마나 참가할까) 기대치와 실제 상황은 사실 많이 다르다.

앞서 부산에 대한 일상적인 인상을 나열했다면 부산에 대한 또 다른 인상이 있다. 부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대구의 구상미술의 위력(?)에 대해 묻곤 했다. 대구에는 미술의 대표적인 경향이 있다고들 말이다. 이것은 타지인이 대구를 인식하는 일종의 ‘브랜드’이다. 나는 부산의 미술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다양함과 실험성, 그리고 젊은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에서 새로운

문화를 보았다. 변화가능하고 발전적인 모습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대구보다 문화소통의 공간이 많다는 것이다. 각 구의 문화회관에서부터 미술관, 분관을 가진 박물관, 공연장, 대안공간 등 쓰임에 따른 공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때 보았던 것이 이방인이었기에 가능한 시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런 현상을 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나는 그때의 ‘기대’를 볼 수 없다. 극히 부분적인 나의 경험들은 부산에 대한 나의 인상을 규정짓고 그 인상을 가지고 나는 나를 통해 부산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산’을 전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나의 시선은 인터넷을 뒤져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부산’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부산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부산의 정체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묻는다. 부산의 정체성이 무어냐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해 나 자신이 공감할 뚜렷한 답은 아직 듣지 못했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행사들이 수시로 개최되며 불꽃놀이 등 다양한 축제가 연중 열리는 ‘Dynamic’도시이다. 지금도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국제해양박물관 개관,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21세기 동북아 해양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탕을 커뮤니티센터로 만들고 3만 명 이상이 다녀간 감천문화마을과 대안공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시는 갈매길 700리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알리는 걸음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아해 부산을 읽는 100개의 키워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부산의 문화와 역사공간을 소개하는 문화길 지도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바람도 덧붙여본다.

아직 나는 부산이 내가 자랐던 대구보다 무엇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곰창보다는 막창이, 비빔당면보다는 납작만두가 맛있고 ‘진짜’ 부산을 모르는 나는 이곳에서 여전히 이방인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부산에 살고 부산을 알아가고 있는 ‘부산시민’이다.

“어디 살아요?”

“부산에 살아요, 그런데 바다는 안 보여요.”



POLITICS OF FILM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IN THE DIGITAL ERA

디지털시대의 영화 복원과 보존의 정치학

2012. 10. 08 ▶ 10

동서학원 소향 뮤지컬 센터
Sohyang Musical Center, Dongseo Educational Foundation

2nd Busan Cinema Fourm • 제2회 부산영화포럼

Day 1 ▶ 10. 8(Mon)

Keynote Speech Jan-Christopher HORAK[Director, UCLA Film & Television Archive]
안-크리스토퍼 호락[UCLA 영화·텔레비전보관소 소장]

Session I Topic : Archive Talk
주제 : 아카이브대담

Session II Topic : Politics of Film Restoration and its Selection
주제 : 영화복원의 정치학 - 복원영화의 선택

Day 2 ▶ 10. 9(Tue)

Session III Topic : Case Studies
주제 : 사례연구

Session IV Topic : Lost Films
주제 : 잃어버린 영화

Day 3 ▶ 10. 10(Wed)

Special Lecture Jean-Marie Gustav LE CLÉZIO[Nobel Prize Winner for Literature 2008]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2008 노벨문학상 수상자]

Round Table 종합토론

Auxiliary Event ▶ 10. 8(Mon) ▶ 10. 12(Fri), 5Days

BCF Exhibiti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Film Restoration
영화복원의 과거와 현재

Sponsoring Events ▶ 10. 10(Wed)

"Movie and Judicial Independence" by Dept. of Law & Institute of Legal Research, Youngsan University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 법률연구소, 주제 - 영화와 사법권의 독립

"Aesthetics and Political Discourses of Chinese Main Theme Films" by Chinese Cinema Forum
중국영화포럼, 주제 - 중국 주선율(主旋律)영화의 미학과 정치적 담론

TEDxBusan, Autumn 2012
TEDx부산, 2012 가을행사



612-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4층
T.(051)744-7707 F.(051)744-7708 www.bscf.or.kr

